

청.장년 성경공부

로마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행하신 일들

<인도자 지침서>

글쓴이 : 러셀 딜데이 (Russell Dilday)
빌 틸먼 (Bill Tillman)
자넷 버튼 (Janet Burton)
단 카나타 (Don Cannata)
드보라 맥콜리스터 (Deborah McCollister)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로마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행하신 일들

판권소유 © : 2006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표준새번역, 2001 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운영위원

주총회(BGCT) 회장 : 찰스 웨이드(Charles Wade)

선교, 전도 및 목회사역 부장 : 웨인 셰필드(Wane Shuffield)

성경공부 / 제자훈련 부장 : 데니스 패럿(Dennis Parrott)

사역팀장: 필 밀러 (Phil Miller)

출판고문 : 로스 웨스트(Ross West), 다국적 언어 사역부

한국어 집필위원

로마서 (1과 ~ 13과) 번역

이재영 (뉴송침례교회)

로마서 (1과 ~ 13과) 편집

최승오 (달라스새누리교회)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08년 8월

패티 레인(Patty Lane): BGCT 상호문화 사역개발부장

넬다 P. 윌리엄스(Nelda P. Williams): 커리큘럼 개발부 고문 및 매니저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의무이다. 이 교사용 공과는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최대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각 수업마다, 당신은 성경공부와 준비에 도움을 주는 교사를 위한 **‘성경주해’** 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주해’ 는 ‘성경적 배경이해’ 와 ‘성경해석’, 그리고 ‘중심 의미’ 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적 배경이해’ 는 공부하게 될 본문 성경의 배경과 전체적인 본문의 요약を提供한다. ‘성경해석’ 은 핵심본문의 주석을 한 절마다 제공한다. ‘중심의미’ 는 핵심본문의 의미와 적용을 도와줄 것이다.

각 과의 두 번째 부분은 **‘학습계획’** 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철저한 **‘학습계획’** 을 세웠다. 첫 번째는 ‘다양한 학습활동’ 이며, 두 번째는 ‘강의와 질문’ 이다. 당신과 당신의 수업에 가장 잘 맞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 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 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 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 와 **‘탐구질문’** 과 **‘학습목표’** 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 과 **‘수업계획’** 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 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 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청.장년 성경공부

로마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행하신 일들

Russell Dilday, “성경주해” 1과에서 7과 저자이다. 딜데이 박사는 조지 트루엣 신학교의 석좌교수이며 베일러 대학교 총장 초청 보좌관이다. 싸우쓰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16년 동안 총장을 역임했었다. 현재 텍사스 알링톤에 있는 B.H. 캐럴 신학원 분교의 총장이다.

Bill Tilman, 8과에서 13과까지의 “성경주해” 저자이다. 틸만 박사는 현재 텍사스 아블린에 있는 하딘-시몬스 대학교의 Logsdon 신학부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다.

Janet Burton 자넷 버튼은 1-5과까지의 “교사를 위한 제안들”을 썼다. 텍사스 오스틴에 살고 있으며 그녀는 기독교 교육자, 작가, 그리고 컨퍼런스 지도자로 유명하다. 또한 베테랑 커리큘럼 작가인 그녀는 지금까지 BGCT 성경공부 교재 3권을 제작하는데 기여했다.

Don Cannata, 6-10과까지의 “성경주해”를 썼다. 텍사스 아즐에 있는 애쉬 크릭 침례교회 목사이다. 슷웰 박사는 테네시의 교회들에서도 목회한 적이 있다. 그는 베일러 대학을 졸업한 후 싸우쓰 웨스턴 침례신학교 목회학 석사를 받았다. 반더빌트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 그는 BGCT 집행부의 부총장을 역임했었다.

Deborah McCollister 11-13과의 “교사를 위한 제안들”을 썼다.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침례대학교의 영어학 교수이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맥키는 텍사스 알링톤 제일침례교회의 회원이다.

로마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행하신 일들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2

단원 1: 구원의 길을 예비하심.

공부할 날짜

제 1과 _____	점선 연결하기6 (로마서 1:1-7)
제 2과 _____	변명도 예외도 없다13 (로마서 1:18-32;2:1-13)
제 3과 _____	충분하지 못해요20 (로마서 2:17-29)
제 4과 _____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27 (로마서 3:21-31)
제 5과 _____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다33 (로마서 4:1-17, 23-25)

단원 2: 가장 최선의 삶을 허락하다.

제 6과 _____	정말 멋진 삶39 (로마서 5:1-11)
제 7과 _____	인생의 새로운 길46 (로마서 6:1-19)
제 8과 _____	당신 안의 하나님의 삶53 (로마서 8:1-11)
제 9과 _____	승리의 삶59 (로마서 8:12-39)

제 3 단원. 유대인을 계속 돌보심

제 10과 _____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가?66 (로마서 9:1-7;10:1-13;11:1-2a;25-32)
-------------	--

제 4 단원.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심.

제 11과 _____	하나님의 긍휼에 부응하는 삶73 (로마서 12:1-8)
제 12과 _____	이렇게 살자80 (로마서 12:9-18; 13:1-14)
제 13과 _____	당신이 비록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환영하십시오86 (로마서 14:1-21)

<p>[제 1과]</p>	<p style="text-align: center;">점선 연결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1:1-17</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1:1-17</p>	<p>학습주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을 때, 이 복음은 전 인류의 역사와 모든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한다.</p> <p>탐구질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은 전 인류의 역사와 모든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p> <p>학습목표 복음의 핵심내용을 정리해보고 이 복음이 전 인류의 역사와 모든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알아본다.</p> <p>학습과 행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인도하는 권위임을 확신한다. -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눈다. - 성숙된 믿음을 발전시킨다. -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로 여긴다. - 예수님과 영-육-혼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 -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갖추게 한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바울은 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 혹은 고린도에서 가까운 Cenchrea라는 해양도시에서 로마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그곳에서 그는 더디오(롬 16:22)라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서기의 도움으로 로마서를 썼다. 그 때가 주후 57년경이었다. 그 후, 1905년에 델포이라는 도시에서 이 책의 사본이 발견되었다. 이 사본에 의하면 주후 52년에 클리우디오스 로마황제는 갈리오를 고린도의 지방총독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2차전도 여행 중 바로 이 갈리오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사도행전 18:12)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기간을 주후 52년경에서 계산해 봤을 때, 바울이 로마서를 쓴 년도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바울이 50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는 이미 로마제국의 거의 모든 동쪽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25년에 걸쳐 잘

못된 교리를 가르치던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 그의 신학은 탄탄하게 발전하였고, 핍박과 고난을 통해 그의 신앙은 더욱 확고하게 증명되어졌다. 그래서 그는 보다 넓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던 로마제국의 서쪽, 스페인으로 향해 떠나며 그곳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에 그는 먼저 여러 교회에서 걷은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위해 예루살렘에 갔다. 그 후, 스페인으로 향하던 길에 그는 로마교회를 들리려고 했었다.(로마서 15:23-24)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떠나기 전에, 그는 로마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 하지만 로마교회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로마교회는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개종한 3000명의 신자 중에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척된 것으로 추측된다.(사도행전 2:10,41)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유대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하지만 로마사학자 Suetonius에 의하면 주후 49년경, 클라우디오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신변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면서 결국 이 로마 교회는 100% 이방인들의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 (사도행전 18:2) 그 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로마교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교인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언뜻 보기에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로마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듯하다. 로마교회 안에는 두 인종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 로마교회가 하나로 되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의 3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편지를 로마교회에 쓴 것이다. 1)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스페인으로 떠나는 전도여행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2)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의 위험한 전도여행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3)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진리를 전하고 이를 통해 로마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위해 쓰인 그의 편지는 그 후,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해 쓰인 책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훌륭한 신학적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으로 손꼽힌다. 침례신학교 교수, Jack MacGorman은 로마서를 가리켜서 “제 5복음서”라고 부른다. 특히 이 로마서는 몇 세기를 거쳐 손꼽힌 기독교계의 위대한 위인들,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그리고 바트등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도 유명하며, 이 책의 저자는 바로 기독교계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각광받는다. 어떤 이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바울이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단 한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이들이 미친 영향력보다 가장 강력하다고 말한다.

본문해석

바울은 자기 자신과 그가 전하는 복음, 그가 섬기는 주인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소개한다. (1:1-7)

사도바울은 주후 5년경, 터키의 해남도시, 다소라는 로마제국의 한 지방도시에서 살고 있던 한 유대집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그의 이름은 구약에 위대한 왕, 사울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다. 또한 그는 헬라이름도 지어졌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울이다. 그는 아마 평생에 걸쳐서 두 이름을 같이 사용했을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헬라집안의 후손이라는 점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었다.(빌립 3:5) 다소지방의 유대교 학교에서 헬라어를 배운 바울은 그 학교를 졸업한 후,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랍비에게서 배우면서 열성적인 바리새인이 된다. (사도행전 22:3)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이교도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다.(사도행전 9장) 그리고 바울을 살리신 예수님은 그에게 사도로, 또한 선교사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 특히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도록 새로운 사명

을 주셨다.

1:1. 바울이 이미 로마교회에 잘 알려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하면서 특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묶인 종”이라고 겸손하게 소개한다. 로마서 16장에 나열된 이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로마 교회의 교인들 몇몇을 이미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이들은 그들을 통해 바울이 누군지 들었을 것이고,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에 메인 종이라고 소개한다.

바울은 또한 로마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길 원했다.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뽑혔다는 사실이다. 그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사명을 위해 특별히 바울을 개인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그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는 단어와 “부르심을 받음”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사도”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5절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5절에 나오는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문장은 1) 믿음에 대한 순종, 혹은 2)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이 2개의 뜻은 결국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뜻이다.

1:1b-3a.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롬 1:1b);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소식이며(1:2);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1:3)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 복음을 다방면에서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다.

1:3b-6. 바울은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설명한다. 3절 후반과 4절에서 사용된 독특한 단어와 시적인 표현은 그가 구약의 시편이 예수님을 설명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써 이는 로마교회가 예배시간에 사용했던 시편이다. 이 시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져 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성결의 영으로는 ...나셨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1:4)은 “성령”의 다른 표현으로, 특히 어떤 영어번역 성경에서는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한다. (NIV, NASB, NRSV)

1:7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설명한다. 이 편지는 로마교회의 교인들이 받았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성도로 부르신 자들이다. “성도”라는 단어는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의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을 뜻한다. 바울의 인사법에서 우린 헬라문화의 전통적인 인사법을 보게 되는데, “평강”(eirene)이라는 말로써 히브리어로 “shalom”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 바울이 인사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평강이라는 단어보다 먼저 언급한데는 이유가 있다. 언제든 지 은혜는 평강보다 먼저 앞선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써 평강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한 그의 관심을 설명한다. (1:8-15)

1:8-12 대부분의 편지에서 바울은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한다. 이번 편지에서 바울은 먼저 로마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과 그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8절에 언급된 “믿음”은 그들의 신실함을 뜻하기도 하고, 그들이 보여준 예수님을 향한 인상적인 믿음의 자세를 뜻하기도 한다. 바울은 아마 두 가지 모두의 뜻을 표현했을 것이다. 그는 또한 이 편지에서 오랫동안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격려와 힘을 먼저 주길 원했고, 또한 그들에게서 스페인 선교를 위한 도움과 격려를 받기 원했다.

1:13-15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은 바로 전도였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1:13)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격려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기 원했었다. 이렇게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대해 빛진 자로써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였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크게 2가지 부류로 구분했다 “헬라인과 야만” 혹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1:15). 주전 3세기경에 알렉산더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 헬라어는 지중해의 전 지역에 공통어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이라고 표현한 대상은 로마인을 포함해서 헬라어를 말하고 그 문화를 익힌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이었다. 그리고 “야만”인들은 헬라어를 말하지 않고 헬라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이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무리 헬라문화를 알고 헬라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대인은 따로 분류를 해서 “비이방인”이라고 불렀다.

바울이 그의 편지의 핵심주제를 소개한다. (1:16-17)

1:16-17 로마서의 핵심주제는 무엇인가? 물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왜냐면 로마서는 많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인류의 죄 (1:18-3:2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 (3:21-8:39); 이스라엘의 운명 (9:1-11:36);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중요성 (12:1-13:14);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논쟁 (14:1 - 15:33)

하지만 로마서 1:16-17절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2가지 주제를 소개한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 이 두 주제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의”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크게 3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 1)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 그는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로마서가 뜻하는 의는 이 뜻이 아니다.
- 2)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로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루터나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런 뜻으로 이해했다.
- 3)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잘못된

모습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이 뜻은 구약성경에서 사용된 뜻으로써 “구원”이라는 의미와 아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17절을 쓰면서 2)이나 3)번의 의미를 영두에 두었을 것이다. 최근의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는 좋은 소식, 복음을 뜻한다고 말한다. 특히,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믿는 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신다는 것이다.

이 의로움이란 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17절) 그래서 믿음은 의로움의 시작이요, 또한 목표이다. 오직 믿음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 목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바울은 의로움에 대한 그의 토론을 하박국 2:4절을 인용하면서 마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1:17) 이 하박국구절은 히브리원어에는 명백하게 쓰여 있지 않다. 헬라어 번역본(70인의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의인은 그의 충성심에 의해 살리라”로 번역되어 있다. 다른 번역본들은 하박국의 이 구절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NASB) 혹은 “그의 충성심으로”(NRSV)로 번역했다. 바울은 하박국 2:4절을 가장 일반적인 번역을 통해 “그의”라는 부분을 생략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로 인용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믿음을 가진 자로써 그들은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가진 자라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구원)안에는 믿음과 새로운 삶, 영생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의미파악

로마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 이렇게 오래된 1세기 편지에서 우리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는 바울이 살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과연 이런 오래된 성경구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가? 물론 그렇다. 왜냐면 인간의 본성은 예전이나 오늘 날이나 똑같이 존재하고 있고, 로마서는 현재 인류가 아직까지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가 만든 모든 창조물은 선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인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선하고 좋은 인간의 삶들은 사탄의 방해와 외곡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파괴된 인류의 삶과 그의 창조물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셨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결국 그의 선하신 뜻이 승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써 21세기의 세계관을 바르게 봐야 할 것이다.

로마서는 우리 모두는 아직 빛진 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로마서 1:14절의 “빛진 자”라는 뜻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돈을 내야 할 고지서 영수증들을 쌓아 놓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빛이란 의미도 이와 유사하다. 교회 건축을 한 후, 교회는 많은 빛을 지게 된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 빌린 돈을 다 갚고 난 후에, 비로써 우리 빛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바울이 14절에서 나는 빛진 자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그가 복음에 대해 큰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 의무감과 책임은 우리가 말하는 금전적인 빛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감과는 조금 다르다. 복음에 빛진 자라는 의미는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긍정적이고 활기를 북돋아 주는 의무와 책임감을 말한다. 바울이 말하는 빛은 아주 크고 중요하지만 결코 우릴 억누르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빛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의 건축을 위한 용자를 다 갠 때나, 혹은 빛을 다 갠 때에 기뻐하고 축제를 벌인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빛에서 자유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고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빛진 상태로 살기를 원했다. 누군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면 그의 빛은 일부분 갠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더욱 복음에 빛을 쬐서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길 소원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런 영적인 복음의 빛에 대한 특성을 깨달았을 때에, 이 빛을 갠 자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고, 더욱 이 빛을 지고 싶어지게 된다. 바울처럼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빛진 자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서로 공유하게 함으로 시작하라. 진행이 너무 느려진다면, 이전의 수업계획에서 언급되었던 문제의 상황을 나누어도 된다.
2. 오늘의 성경공부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였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고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들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에 대해 더 나은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학습인도

3. 고린도후서 공부를 시작할 때, 질문지와 답안지를 준비한다. 종이의 왼쪽에는 질문을, 오른쪽에는 답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든다. 밑에 있는 보기가 문제의 반대편에 정답을 보여줄 지라도, 참여자들이 선을 그어 맞출 수 있도록 순서를 섞어 배열한다. 이러한 순서를 끝낸 뒤에 정답에 관해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질문		정답
1. 언제 세워졌는가?	•	• 바울의 2차 전도 여행(행 18:1~17)
2. 바울과의 관계는?	•	• 바울의 가장 골치 아픈 교회
3. 사회적 상황은?	•	• 도덕이 무너진 세계적 무역도시
4. 교회안의 문제들?	•	• 고린도전서의 연설
5. 주된 문제의 거론	•	• 바울의 리더십에 관한 도전
6. 종교적 배경은?	•	• 아프로디테의 신전
7. 다른 서신들은?	•	• 네 가지 중에 하나

이러한 답안들을 나눌 때에, 이 지도자용공과에 나오는 **성경주해**와 학습용공과에 나오는 배경 정보들을 추가로 채워 넣는다. 바울이 이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신의 리더십과 복음을 변호할 때 그의 개인적인 면들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참여자들에게 이해시켜 준다.

3. 학생용 공과에 나오는 ‘고린도후서의 소개’ 통하여 고린도후서에 대한 개략을 설명해 주라. 교육계획의 3단계에 나오는 사전테스트를 사용해도 좋다.

4. 고후 1:1절을 큰 소리로 읽고 묻는다.

“바울은 왜 1절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관해 언급했는가?” 바울이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공부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부가적인 증거들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라.

5. 고후 1:2-3절을 큰 소리로 읽고 묻는다.

“바울의 감사 표현으로 결론지어진 이 절들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선물들은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 ‘자비’와 ‘위로’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의하라. 이것들에 대한 정보는 인도자용 공과에 나오는 성경주해와 학생용 공과를 참조하라.

6. 고후 1:4~7절을 읽기 전에, 바울이 이 본문에서 제시한 위로의 사역을 준비함에 신경 쓰도록 참여자들을 격려한다. 이러한 준비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a.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환란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게 된다(1:4).
- b.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위로에 동참할 수 있다(1:5).
- c. 우리가 고난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에 대해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사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1:6).
- d.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그들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7. 고후 1:8~10 묘사된 아시아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의 경험에 대한 간략한 강의를 준비하라. 학생용 공과를 참조하라.

8. 만약 당신의 교회에 중보기도자들이 있다면, 11절에 대한 토론과 관련된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교회에 중보사역을 후원하도록 참여자들에게 도전을 심어주라.

적용 격려

9. 참가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중보사역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라.

10. 이 번주를 성경공부를 통해 고통의 시간들에 대해 다루거나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자 할 때 참여자들 삶 가운데 배웠던 것을 통하여 특정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p>[제 2과]</p>	<p style="text-align: center;">변명도 예외도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1:18-32; 2:1-13</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1:18-2:16</p>	<p>학습주제 모든 사람들(죄인이든, 신앙인이든)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p> <p>탐구질문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p> <p>교육목표 이번 성경공부를 통해 왜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혹은 “죄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배운다.</p> <p>학습과 행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인도하는 권위임을 확신한다. -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눈다. - 성숙된 믿음을 발전시킨다. -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로 여긴다. - 예수님과 영-육-혼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 -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갖추게 한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헬라어 학자들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쓴 글의 문체는 문법적 오류가 많고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어떤 문장은 너무 길고 뜻이 꼬여 있으며 어떨 땐 문장을 끝내지도 못했다. 이런 바울의 독특한 문체에 대해 William Barclay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편안한 책상에 앉아서 좋은 종이와 펜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정성스럽고 정교하게 썼던 것이 아니었다. 로마서 16:22절을 통해 우리는 더디오라는 형제가 그의 생각과 말을 대신 편지로 쓴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바울은 그가 로마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깊이 생각을 했다. 아마 그는 방안을 왔다갔다 서성이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그의 의견과 확신에 대해 급하게 말했을 것이다. 그때, 더디오는 아주 빨리 바울의 말을 받아쓰면서 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찢찢매었을 것이다. 그때 바울이 뿔어냈던 말

들은 마치 독 터진 물살처럼 거침없이 쏟아졌을 것이다. 그런 성령에 감동받은 바울의 거침없는 말들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가 처음에는 말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 글에 묻어 있는 바울의 영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야 했다.

첫 17절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 다룬다. 이 요점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의 중재로 인류가 죄에서 구원 받았다는 기쁜 소식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18절부터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이 오히려 몇 가지의 나쁜 소식도 함께 전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3:21절에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요한 요점을 강조한다.

1장 18절에 “대하여(for)”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자. 어떤 이들은 16절과 17절도 “for”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18절을 시작하는 “for”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그 이유는...”으로 번역해야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의 사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성경공부를 통해 종교적인 사람이든지,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든지,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들을 원래의 선한 모습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 직접 일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공부의 주제 “변명도 예외도 없다.”라는 의미이다.

본문해석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날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이다. 오늘 날, 포스트모던니즘 시대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 진리는 없다고 믿는다. 특히 미국에서는 개인의 의견과 선택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기준을 다른 이에게 강요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사상이 결코 모든 사람의 의견과 진리는 다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존재한다. 너무나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히틀러나 사담 후세인과 같은 사람들의 선택이 그저 지혜롭지 못한 정도의 선택 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택은 분명 아주 잘못된 선택 이었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 인간은 죄를 선택했고 죄악가운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구약성경의 권위를 바탕으로 바울의 죄에 대한 개념은 아주 엄하고 단호하다. 죄는 지혜롭지 못하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로써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

헬라어로 “진노”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분노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인간의 복수심이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화, 혹은 사나움이나 흥분상태를 뜻하는 단어는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표현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묵인하실 수 없다. 그의 진노는 죄와 사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것은

곧 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형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라고 말한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벌이...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라는 의미와 같다.

이방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1:18-32)

1:18. 바울이 사용한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는 단어와 “불의”라는 과격한 단어들을 주목하기 바란다. 이 두 단어들은 십계명이 두 개로 나뉘지고 있음을 표현한다. 십계명의 첫 4계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고, 나머지 6계명들은 인간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십계명을 이 구절에서 우상이라는 단어와 불의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1:19-23.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 죄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예외가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20절) 물론 이런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엔 충분하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든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죄악이었다고 암시했다.

1:24-25.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3번이나 “내어버려두사”(1:24,26,28절)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맘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끝내 자신들의 짓값을 스스로 치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다. 그들은 진실을 거짓에 팔아버리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성적인 죄와 불결한 행실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내버려두셨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질서를 깨뜨릴 때, 결국 그들은 죄악으로 물든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런 악한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1:26-28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배반의 증거로 동성연애라는 문제이다. 성경의 권위를 바탕으로 바울은 성적관계는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된다고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동성연애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죄라고 강조한다. 그만큼 동성연애의 문제는 구약과 신약에서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다.

성경은 동성연애의 유혹이나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나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같은 동성끼리의 음탕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만큼 성경은 동성연애라는 문제를 가장 심각하고 악한 죄로 간주하고 있다. 모든 부정한 성적행위는 죄이다.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용서와 구원은 모든 죄인들에게 허락된 것과 같이 동성연애자들에게도 물론 동일하게 허락된다. 하지만 바울이 이 구절에서 특별히 동성연애라는 죄를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죄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한 죄들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며, 또한 이 문제가 1세기 교회들 사이에 넓게 퍼져있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1:28-31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신약시대에 만연했던 여러 가지 악독한 죄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목록에 나열된 죄들은 무작위로 작성되었지만 분명히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는 같은 종류의 죄들을 나열하고 있다.

1:32 결론으로 이방인 죄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역사에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데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양심을 통해 도덕적인 법을 깨달으며,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최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1:20.32)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악으로 물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일하신 이유이다.

유대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2:1-16)

2장부터 바울은 “저희들”(1:32)라는 표현을 “너희”(2:1)라고 바꾸면서 이야기의 대상을 이방인 죄인에서 유대인 죄인으로 옮겼다. 바울이 2장에서 쓴 글은 “diatribe”라는 표현법으로 가상의 반대자와 함께 토론하는 형식이다. 2장 1절에서 “누구든지 네가...”라는 표현은 가상의 토론자와 대화 하는 형식으로 글을 썼다. 2장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가상의 토론자는 전에 유대회당이나 시장에서 같이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2:1-11 로마교회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을 때에 반가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초점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그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비판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도 “똑같은 죄”(2:1)를 짓기 때문이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죄란 1장에서 나열한 일반적인 죄들을 말하는 것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우상숭배나 동성연애는 오히려 흔한 죄는 아니었다.)

비록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며 모세의 율법을 받은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순 없다. 1세기에 살았던 성자 Justin Martyr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할 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랍비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고 가르치고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은 결국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이나 민족만을 편애하지 않으시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2:4,11)만을 기대할 수 없다.

2:12-16 하나님의 법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되기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심판에 유리하다고 믿고 있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도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그들의 무의식속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법을 심어두셨다. 그리고 이 양심은 “그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2:15)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각자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따라 판단 받게 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2:7).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2:13). 다음의 두 구절이 구원은 행위를 통해 얻는다고 주장하는 구절인가? 아니다! 바울은 이 두 구절을 통해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은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인데 누구도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왜냐면 죄의 권세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로 하여금 단순히 율법을 따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선한 행위가 구원에 필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방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

는 것이다.(3:10-12)

이어지는 구절들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설명하는 구절들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3:20).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에베소서 2:8-9)

의미파악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 신자들까지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살인 같은 큰 죄만 짓지 않으면 하나님은 작고 하찮은 죄들은 그냥 봐주실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어느 주일 저녁예배에서 험악한 카우보이 두 명이 10계명에 대한 무서운 설교를 듣고 있었다. 예배가 끝나고, 그 두 명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두운 밤길을 오랜 시간동안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가고 있다가 결국 한명이 침묵을 깨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도 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겁먹은 표정은 안 지었어.”

우리는 살면서 심각하고 잔인한 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중요치 않는 죄들은 눈감아 주실 거라고 믿는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끝없는 인자하심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이셨다는 사실은 바로 모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죄를 영원히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밖에는 없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구원이다.

그러면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이런 애매한 질문에 대해서 부분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바울은 그들도 이미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창조물을 통해 그의 능력과 성품을 나타내셨다(1:19-20). 그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두시고 율법의 행위를 알게 하셨다고 설명한다.(2:14-16)

명백한 것은 창조물들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과 마음속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과 양심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인간의 응답은 배반과 오만, 그리고 우상숭배였다.

Elizabeth Barrett Browning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땅이 하늘을 삼키고
모든 수풀이 하나님과 함께 불탈 때,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신발을 벗을 것이며

나머지는 둘러앉아 산딸기만 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자연계시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양심은 결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진 못한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다. 누구도 이런 사실에서 예외는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길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평하신 방법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교시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먼저 “좋은 소식/나쁜 소식”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단어연상게임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게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어떤 문장을 읽으면 그 문장과 연관된 나쁜 소식은 먼저 말하는 게임이다. 당신이 읽을 문장은 다음과 같다. 경찰이 당신 집에 왔다; 일기예보 경보; 저녁뉴스; 의사의 진찰결과; 한 밤중에 전화벨소리.
2. 학습공과의 Quick Read를 같이 읽고 내용을 나누어보자.

학습인도

3. 로마서 1:18-25절을 읽을 지원자를 정한다. 2명을 정하고 각자 다른 번역본으로 읽도록 한다. 학습공과의 “일반계시와 특수계시”의 내용을 참조한다.

질문 : 로마서 1:19-20절에서 바울은 일반계시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수계시를 말하는 것인가?

(정답 : 일반계시)

4. 학습공과의 “나쁜 소식은 정말 안 좋은 소식이다”내용과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의 내용을 참조해서 다음의 진리를 설명한다.

- 자연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1:18-20)
-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보여준다. (2:14-15)
-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깨달음을 스스로 거부할 수 있다. (1:21-22)
- 어떤 대상을 경배하고자 하는 원함은 오히려 잘못된 우상을 섬기게 할 수 있다. (1:23)
-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할수록 우리의 행위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된다. (1:24-25)
-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시고 결국에는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하신다. (1:24,26,28 : “하나님께서...내어 버려두사...”)

5. 칠판 중간에 세로로 줄을 긋고 2칸을 나누던지, 아니면 2개의 큰 종이를 잘라서 하나씩 붙인다. 그리고 첫 번째 칸이나 종이에 먼저 “가진 자”이라고 쓰고 두 번째 칸이나 칸에는 “가지지 못한 자”이라고 쓴다. 로마서 2:1-11절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 대답들을 “가진 자”에 적도록 한다. (보다 자세한 도움은 학습공과의 “나쁜 소식은 점점 더 나빠진다.”에서 구하라.)

-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인가? (2:1)
- 믿음을 “가진” 신자들도 짓는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1)
-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는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1:29-31)

6. 로마서 2:12-16절을 읽고 다음의 질문을 통해 이 구절들의 뜻을 찾아보자. 그리고 찾은 뜻을 “가지지 못한 자” 아래에 적어보자. (보다 자세한 도움은 학습공과의 “나쁜 소식들밖에 없다”와 지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에서 구하라.)

- 성경을 “갓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2:12-13)
- 성경을 “갓지 못한” 자들은 어디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찾을 수 있나?(2:14-15)
- 언제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가? (2:16)

적용격려

7. 학습공과의 “좋은 소식이 훨씬 좋다”에 있는 “좋은 소식/나쁜 소식” 이야기를 나누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토론한다.

8. 한명을 지목해서 지난 주 내용인 로마서 1:16-17절을 읽게 한다.

질문 : 왜 “좋은 소식”은 진짜 좋은가? 이런 “좋은 소식”은 이미 신앙이 있지만 질투, 시기, 험담, 욕심의 죄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주는가? 어떻게 하면 아직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9. 이번 주에 각자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 한 가지를 세운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다.

-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책자를 준비해서 각자가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선교단체에 봉사자들을 보내고 그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본다.
- 미전도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살 수 있는 선교비를 지원한다.
- 군인들에게 음식과 성경이 든 사랑의 물품을 보낸다.

10. 다음을 명심시킨다. 우리가 위와 같은 일들을 계획할 때,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지 먼저 기억하자.

질문 : 왜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종교적이지 않는” 죄인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며 누구도 예외는 없는가? 한명을 초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로마서 1:18-19; 2:1을 같이 읽고 오늘의 주제도 같이 읽으면서 성경공부를 마친다.

<p>[제 3과]</p>	<p style="text-align: center;">충분하지 못해요!</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2:17-29</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2:17 - 3:20</p>	<p>학습주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외적인 행실이나 종교적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적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p> <p>탐구질문 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가? 아니면 종교적 행위나 의식, 또는 선한 행실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p> <p>교육목표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연결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외적인 종교적 행위나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가를 알아본다.</p> <p>학습과 행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인도하는 권위임을 확신한다. -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눈다. - 성숙된 믿음을 발전시킨다. -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로 여긴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먼저 편지의 핵심주제를 언급하면서 로마서를 썼다. “복음: 모든 창조물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로마서 1:1-17). 그런 후, 로마서 1:18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천천히 설명한다. 그리고 3:21절에서 다시 로마서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한 결과였음을 설명했다.

이렇게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는 글의 형식은 바울만의 독특한 글씨기 창법이다. 어쩌면 말로 이야기하던 바울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받아쓰기를 하면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사도바울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임의로

여러 내용들을 동시에 다루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잠시 다른 내용을 이야기 하다가 다시 본 주제로 돌아오는 글의 형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글의 형식은 그의 거의 모든 편지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었으며, 그 결과, 그에게는 “세계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유일한 사람”(여러 가지 주제를 동시에 다루면서도 결국 그 주제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설명한다는 의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비록 그의 모든 편지들이 이런 복잡한 글의 형식으로 쓰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의 그런 표현들조차 성령께서 그의 목표를 위해 사용하셨다는 사실이다. 그의 편지를 읽다보면 가끔 가장 중요한 하나님말씀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표현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로마서 1:18-3:20절을 읽을 때엔 특히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율법과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믿음이 더욱 중요하는 것을 강조한다.

본문해석

로마서 2:17-29절에는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도 유대인인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서 1:2-16절에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 구절들에서 표현된 그의 신랄한 비판을 통해 모든 위선자들과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을 알 수 있다. 그의 답변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율법의 위치 2) 할례의 위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나? (2:17-24)

2:17-20.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특권이 결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한다. 순종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만약에”라는 단어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9가지의 특권들이 무엇인지 나열한다.

- 1) 그들의 이름들
- 2) 그들이 가진 율법
- 3) 하나님과의 관계
- 4)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
- 5)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 6) 세상의 영적 장님을 인도할 수 있는 위치
- 7)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과 같은 위치
- 8) 무지한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위치
- 9) 미숙한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

이와는 반대로, 바울은 이방인들의 위치를 설명할 때에 유대인들의 위치를 설명할 때보다 덜 칭찬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장님”, “어리석은 자”, 혹은 아이들처럼 “미숙한 자”라고 불렀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아주 복잡한 역사와 의미를 지닌 이름이다.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가장 처음 쓰인 때는 열왕기하 16:6절이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유다족속의 사람이나 혹은 남유다의 사람들을 일컫었던 표현이었다. 바벨론 포로시기 때, 대부분의 포로들은 남유다 출신의 사람들이었기에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모

든 히브리인들을 일컬어 쓰인 표현이다. 그래서 포로시기 때 같이 살던 이방인 이웃들은 모든 히브리인들을 부를 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외에 이들을 부르는 다양한 다른 이름들이 있다. 1) 히브리인, “강을 건너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았던 유목민들을 뜻하는 이름이다. 2) 이스라엘인, 야곱의 새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으로써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며, 특히 북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이름이다.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 혹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이름이다. 3) 셈족, 노아의 아들중, 셈의 자손임을 뜻하는 이름으로써, 특히 셈족속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 셈족속의 언어들은 히브리어, 아랍어, 아시리아어, 페니키아어, 아카드인어, 아람어, 이디오피아어등의 언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셈족이라고 하면 보통 유대인들을 뜻한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이어받은 민족으로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뜻한다. 그래서 1세기에 바울이 말했던 유대인은 유대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위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고맙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특권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민족이었으며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2:18)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전해야 할 선생으로, 인도자로, 혹은 바로잡는 자가 되어야 하는 선교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2:21-24. 이런 특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런 위선적인 삶을 지적하면서 “다른 이들은 가르치는 너희들은 먼저 너희 자신부터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한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

바울이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라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세기 시대에는 보통 이방신전의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상들을 훔쳐서 팔아먹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와 같은 일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우상을 멀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방신전의 우상을 팔아다가 돈을 벌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도적질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하여튼 바울은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신당들을 상대로 불순한 범죄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성전의 십일조와 헌금을 가로채는 죄까지 짓는 그들을 비판했다.

할례의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가? (2:25-29)

고대에는 여러 문화권에서 할례의식을 행해왔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의식이 다른 문화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태어난 지 8일된 남자아이들은 모두 할례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증표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유대인공동체에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식이였다. (창세기 17:9-13)

이스라엘민족은 매커비어스 시대(BC 166-160)에 그리스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에 Antiochus Epiphanes라는 그리스의 악독한 황제에 의해 할례를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었다. 하지만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들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 후, 이스라엘민족에게는 할례라는 의식이 더욱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바울의 시대에는 할례가 유대인이 신앙을 대변하는 표증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끔 할례 받은 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도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의식이라고 말한다. 율법에 순종치 않는 것은 결국 할례의 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2:25)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으로 태어나거나, 할례를 통해서나, 혹은 어떤 책을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적인 변화에 의한 것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성령(pneuma)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2:29). 바울이 이 구절에서 대조시키는 것들은 서로 광장히 상반되는 것들이다: 외부 vs. 내부; 육체 vs. 마음; 문자 vs. 영적; 그리고 인성 vs. 신성.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진정한 백성이라고 강조한다.

요약 : 인간의 원죄의 일반성 (3:1-20)

로마서 2:17-29절에서 초점을 맞추는 내용 외에 바울은 전체내용의 배경을 로마서 3:1-20절에서 더 나누고 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로마서 3:21절의 복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나누기 전에, 앞 구절에서 그가 간접적으로 다루었던 인간의 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 그래서 3:1-20절을 요약구절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지금까지 인간의 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3:9-10) 이 구절은 바울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요약한 구절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특별계시와 그의 창조와 양심을 통한 자연계시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바울은 그의 이런 주장을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증명하고 있다.(3:10-18) 이런 인용법을 “연쇄(catena),” 라틴어로는 “사슬”이라고도 부르며 고대 랍비들이 많이 사용한 인용법이다. 랍비들은 이것을 진주목걸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의 한 구절을 진주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증명하는 다른 인용구절을 연결시키고, 또 그 구절을 지지하는 다른 인용구절을 연결시킨다고 해서 진주목걸이라고 부른다. 인용구절은 똑같이 인용되지 않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을 정리해서 인용된다. 시편 14:1-2; 53:1-3; 5:9-10; 140:3; 10:7; 36:1-2; 잠언 1:16; 그리고 이사야 59:7-8.

바울은 이번 내용을 결론지으면서 다시 한 번 그가 주장했던 요점을 되풀이 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20)

의미파악

구원, 내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이 성경공부를 통해 독자들이 삶에 적용해야 할 메시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구원은 내적인 문제이지 외적인 자격조건이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그 이유를 단지 매주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 등록교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침례를 받았거나 종교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바울이 전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며 그 내용에 의해 비판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구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

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에 의해 새롭게 거듭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과의 제목은 “충분하지 못해요”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3:3). 로마서 3:3절은 하나님의 성실하심(미쁘심)을 설명한 많은 구절들 중에 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가상의 반대자들이 물었던 질문, 과연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질문을 부정적인 물음으로 다시 다듬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문법적 기술을 사용했다. 그리스어에는 질문을 할 때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아니요”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법이 있다. 이 구절에서 단순히 “아니하느냐”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예”라는 대답을 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문법적 기술을 사용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4절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혹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강력한 대답을 사용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예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을 영원히 기대할 수 있다.

교시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모든 사람들에게 아래의 8가지 종교행위가 적힌 종이를 나누어 준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10명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아래의 종교행위를 하는 이웃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설문조사한다.

10가정 중, 몇 가정이 다음의 종교행위를 하는가?

- 1)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가정.
- 2) 하나님을 믿는 가정
- 3)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가정
- 4)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가정
- 5) 집에서 성경을 읽는 가정
- 6) 십계명을 지키는 가정
- 7) 성찬식에 참여하는 가정
- 8) 헌금과 십일조를 하는 가정

숫자를 매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비교해보자.

질문: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종교행위는 무엇인가? 어떤 종교행위는 카운트하기에 힘들었는가? 이번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방금 조사한 결과를 나누고 서로 비교해보자.

2. 다음의 3 단어를 칠판에 적어보자. “종교적,” “정직한,” “관계.”

질문: 다음의 단어들은 서로 어떤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8가지의 종교의식들 중에 어떤 의식들이 종교적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인가?

(적용격려의 6번째 단계에 있는 부분을 참조해서 위의 3 단어들의 뜻을 먼저 나누어보자.)

그리고 학습공과의 학습주제와 교육목표를 읽어보자.

학습인도

3. 다음의 단어들을 칠판에 적어보자. “특권,” “책임,” “위선.” 한명을 지목해서 로마서 2:17-24절을 읽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으면서 바울이 다음의 3가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다음의 질문들을 한다.

- 유대인들은 어떤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 이 특권들은 어떤 책임이 함께 동반하는가?
- 바울이 언급한 위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음의 질문도 함께 한다.

-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세상을 향해 어떤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가?
- 오늘 날, 바울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영적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가?

4. 로마서 2:25-29절을 읽고 이 구절에서 유대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종교의식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으로 증명하는 종교의식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학습공과에 나오는 “유대문화와 초대교회의 할례”의 내용을 나누자.

아까 1번째 단계에서 했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다시 한 번 나누어보자. 그리고 조사한 8가지 종교의식들 중에서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단순한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종교의식은 어떤 것들인지 나누어보자.

질문: 어떻게 하면 이런 외적인 종교의식들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보다 의미 있는 의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학습공과의 “문제의 핵심을 뚫다.”의 내용을 참조한다.

5. 한 명을 지목해서 로마서 3:1-2,9-10,20절을 읽도록 한다. 그리고 바울의 시대에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현대에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과의 다른 점들을 비교해보자:

-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혹은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느냐는 조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의 받는 문제에 있어선 아무런 상관이 없다.
- 바울 시대의 유대인이든, 오늘 날 그리스도인이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 우리 모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느냐는 그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필요한가를 말해주는 이유가 된다.
- 종교의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비로써 의미 있고 필요한 의식이 된다.

적용격려

6. 몇 분간 조용히 옆 사람과 서로의 간증을 나눌 때, 처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첫사랑의 순간을 서로 나누도록 한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서로 해보자.

- 단순히 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등록교인이 되는 것을 뛰어 넘어서, 언제 비로써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나?
-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성찬식에 참석하는 등의 종교의식들은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가는데 어떤 의미로 다가 왔는가?

아직 예수님께 죄 사함을 구하지 않고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을 잠시 앞으로 초청해서 모두가 같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그리고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나 영접을 위한 복음송을 같이 부르면서 마무리를 한다.

<p>[제 4과]</p>	<p style="text-align: center;">여기에 해결책이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3:21-3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3:21-31</p>	<p>학습주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과 죄악의 늪에서 벗어 날 수 있는가?</p> <p>교육목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나의 믿음을 재점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확인한다.</p> <p>학습과 행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인도하는 권위임을 확신한다. -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눈다. - 성숙된 믿음을 발전시킨다. -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로 여긴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바울은 그 독자들에게 구원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닌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해 주길 원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길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렇듯이, 바울은 2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기 원했다. 첫째로,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 권위와 권세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예화를 보여주길 원했으며, 바울의 권세는 구약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가데스 우르 태생의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첫 번째의 믿음의 조상으로 간주된다. 그의 삶은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순종자의 모델로 간주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판정을 받은 경건한 자라고 생각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칭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성서의 정전 이외의 B. C.2주기 유대인의 책 ‘희년’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히 행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생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의인이었다."라고 말한다.)

로마에 있는 몇몇의 교회들은 명확한 전통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사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말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주장한 바울의 생각은 새로운 이단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새로운 사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만약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 심지어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지 못했음을 보여 줄 수 있었다면, 아무도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음을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바울이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놀라운 이 영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 줄 수 있었다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에 그의 사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확신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음은 새로운 사상이 아닌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아브라함 만큼이나 오래된 사실이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답이다.

본문해석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음 - 정정 (4:1-15)

바울이 계속해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말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1)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또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4:1-8)
-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이 그가 할례를 행하기 전에 선포하신 것인가, 또는 그가 할례 받은 후에 선포하신 것인가? (4:10-11상반절)
- (3)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할례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가? (4:11하반절-12)
- (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인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가? (4:13-15)

4:1-8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또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유대인들은 성경을 3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모세오경(Torah), 선지서(Neviim), 그리고 시가서(Ketuvim). 이 히브리어의 두서를 사용하면, 그들은 성경을 가리켜 부르기를 TNK 또는 Tanak 이라고 부른다. (비슷한 예로, 몇몇의 성경연구 학자들은 앞부분의 두서를 사용하여 성경을 O.T. 그리고 N.T. 라고 부르기도 한다 - 영어로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임) 모세오경은 구약의 처음부분부터 다섯 번째 이르기까지의 성경을 말한다. 선지서는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가서는 나머지의 성경을 말한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유대성경학자들이 전형적으로 선지자와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했으며, 주로 모든 구약성경을 율법과 선지서로 지칭하기도 했다. 유대의 랍비들은 성경의 핵심을 풀어내고자 했을 때 유대

율법으로부터 한 구절을 인용하였으며, 그 구절과 연관된 다른 선지서를 참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서로까지도 연결되었다. 이 두 부분은 그들이 공통적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다.

4:3-8 바울은 먼저 구약을 참조하여 말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로마서 4:3, 인용구 갈라디아서 15:6) 그 후에는 선지서로부터 참조하여 말한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7-8, 인용구 시편 32:1-2). 이 두 성경구절의 근거 하여,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심이며 아브라함이 행위에 근거하여 의롭다 칭하심을 받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

4:5 바울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혹시 거꾸로 된 표현을 잘못 기록 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읽어야 하지 않을까?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우 놀라운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죄인이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악한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다 - 오로지 은혜와 믿음에 의해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없이는, 의롭지 못함을 의롭다 하심은 의롭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려 돌아가셨으며, 하나님만이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13-12)"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됨을 용납하시며, 우리의 죄를 덮으시며,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세지 않으셨다.

4:9-11 상반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이 그가 할례를 행하기 전에 선포하신 것인가, 또는 할례 받은 후에 선포하신 것인가?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함주어 말한다 (창세기 15:6, 17:1-24). 그러므로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율법이나 의식을 행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다. 만약 로마에 있는 유대성도들이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할례를 상징하는 의식을 통해서가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의 핵심적인 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관계를 맺었다는 상징이나 징표를 뜻하는 것이다.

4:11하반절-12절 :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할례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가? 9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라고 의문점을 던진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칭할 수 있는 것이다.

몇몇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친절한 자세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성전예배의식, 회심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금지 되어 있음을 기억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이방인의,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강요했다. 바울은 당대하게 그들의 이러한 자세를 지적한다. 그는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로마서 4:11)" 라고 설명한다. 16절에서도 계속 하여 바울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한다.

4:13-15절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인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가? 바울은 계속하여 논리적인 주장으로 반박하여 말했다. 만약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놓인 불순종한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죄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은 율법의 존재라고 넌지시 말하였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었던 ‘죄’의 그리스 원어인 hamartia (과녁을 빗맞추다)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대신에, 바울은 좀 더 죄를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 범법, 죄를 깨뜨림이라는 뜻의 parabasis 를 사용하였다. 죄는 단순히 missing the mark 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바울은 parabasis 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배, 죄, 또는 율법을 깨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공허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4:14)

믿음으로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음 - 요약 (4:16-25)

4:16-22 "아브라함의 믿음" 이란 무엇인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의 노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해주신 것을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듯 했으며, 심지어는 우습기까지 한 말씀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창세기 17:17; 18:12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던 장면을 참조하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굳건히 믿기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 (로마서 4:19절에 바울은 100살의 아브라함을 “그는 이미 죽은 몸과도 같았다” 고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궁금해 하기도 한다.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가 웃었을까? 아마도 그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기대와 또 기쁨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만약, 아브라함의 웃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쉽게 믿지 않은 의심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의심의 순간을 이겨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4:20)" 아브라함의 모든 의심의 상황을 이겨내고 약속을 굳게 믿은 이 놀라운 믿음의 본보기는 우리에게 본질의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여 가르쳐 주고 있다.

4:23-25 오직 믿음만이 구원으로 가는 한 가지 길인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분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음과 예수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4:25 우리는 결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고후 13:4)

교사를 위한 강의 및 수업계획

삶과의 연결

- 다음 빈칸을 채움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과 그의 일생에 대해 정리해보자.
 - () 에서 태어남. (갈대아 우르)
 - () 으로 이동함. (하란)
 - 아내의 이름 : () (사라)
 - 하나님께서 그를 () 로 부르심. (가나안)
 - 아브라함이 구조했던 조카의 이름: () (롯)
 -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치었던 왕의 이름 : () (멜기세덱)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 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심. (아들)
 - 아브라함이 언약의 표징으로 행했던 것은 () 이다. (할례)

학습인도

- 아브라함에 관한 0, X 퀴즈를 맞춰보자

아브라함에 관한 0,X 퀴즈

- () 1.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십일조를 한 의인이었다.
- () 2. 아브라함의 선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 () 3.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시려고,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징표로 주셨다.
- () 4.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 () 5. 명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방인이었다.
- () 6.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 () 7.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 () 8.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므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들은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
- () 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 로마서 4:1-3절을 읽고 문제 1번에 관한 답을 맞춰보자

4. 다음 질문을 답해보자. 아브라함이 행했던 선한 행실은 무엇들이 있었을까? 바울은 왜 아브라함이 선한 행실로가 아닌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했을까? (0,X 퀴즈1번 문제의 답은 0, 2번의 답은 X)

- 한 사람을 지목하여 로마서 4:4-8절을 큰 소리로 읽게 하라. 성경 구절을 이해하자. 특히 삶에 관한 예화를 주의 깊게 읽어보자. STUDY GUIDE 에 "하나님은 우리의 빛진 자가 아니십니다." 라는 정보를 사용해 보자.

6. 로마서 4:9-12절을 읽고 0,X 퀴즈에 3-5번의 질문을 맞춰보자. 바울이 창세기 15:6절을 3절과 9절에서 인용한 것을 영두에 두도록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다음을 또 기억해 두자.

-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창세기 17장에 나온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기 전이었다.
-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약의 표징이었지만, 이것은 의로움을 전달해주지는 않았다.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0,X 퀴즈 3번은 0, 4번 X, 5번 0)

7. 로마서 4:13-17절을 읽은 후 0, X 퀴즈 6-8번을 답해보자. 다음 사실을 꼭 기억해 두자.

-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구원해 이르게 했으며, 그의 선한 행실은 믿음의 자연스런 결과였다.
-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의 시대 400년 후에나 생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또한 그러했다. (0, X 퀴즈 6번답 X, 7번 0, 8번 X)

8. 로마서 4:18-25 절을 읽은 후 0, X 9번 문제를 풀어보자. 다음 포인트를 꼭 기억해 두자.

-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들인 이삭을 낳았을 때, 그는 이 땅으로 업을 삼을 것이라는 말씀을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보기 위해 살지 않았다. 장차 여호수아를 통해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얻게 될 땅을.
-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외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하였다. 이 위대한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했으며, 번제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히브리서 11:19)
-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모든 나라에 축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되었다. (0,X 퀴즈 9번답은 0)
-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개인의 희생을 할 때가 아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적용격려

9. 나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로 수업을 마친다. 9.???

<p>[제 5 과]</p>	<p>오직 믿음만이 길이다</p>
<p>핵심본문 로마서 4:1-17, 23-25</p> <p>배경 로마서 4장</p>	<p>학습 주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항상 믿음에만 근거를 두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p> <p>탐구 질문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무가 아닌, 믿음의 중요성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p> <p>학습 목표 바울이 강조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약하여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자.</p> <p>실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확증한다 * 성장하고 활력있는 믿음을 개발한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바울은 사역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긍정적인 말로 계속해 왔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의 주제로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는 그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과 위협에 개의치 않고 바울이 그의 사역을 신실하게 유지하게 되었던 주제의 연장이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강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이유로써 죽음 후에 삶의 확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르침에 있어서, 바울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혼동된 헬라의 사고방식에 맞섰다. 헬라사람들은 선한 영 또는 혼이 악한 육체 안에 묶여 있다고 생각했다. 헬라의 이상적인 사고방식은 선한 혼이 제한적이고 무려 터진 악한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었다. 몇몇 헬라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육체를 경멸함으로써, 육체적인 금욕을 강행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육에 기인한 행동은 사후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죄악을 포함한 아주 극단적인 방종의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

바울의 히브리 사고방식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은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이다. 그 창조물이 때로는 악한 방법들에 사용될 때도 있지만, 본질적인 창조자체는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서 생각하지 않았다.

더욱이, 바울은 육체의 부활 약속을 확실히 믿었다. 그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상태가 아닌, 부활 이후의 새로운 육체를 기대하였다. 이 본문에서는 인간 육체의 악함과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상태의 희망하는 헬라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뒤집고자하는 바울의 목적도 담겨 있다.

고린도 후서 4:16-5:10은 하나의 통합된 서술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인 단락은 죽음의 위협을 포함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역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는 주제를 이어가고 있다.

본문 해석

영원한 비전(4:16-18)

바울은 미래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역가운데 긍정적으로 남아 있었다.(참조 고후 4:14~15) 그는 일시적인 현재와 영원한 미래를 대조하였다.

4:16 바울의 부활과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지식에 대한 확신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바울은 겉사람, 즉 육체의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 받고 쇠약해지는 것을 인정했다. 이와는 반대로 속사람은 끊임없이 힘과 새롭게 됨을 받았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인간의 신체적 구성을 언급하는 것이고,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 “질그릇”, “몸”, “죽을 육체”에 부합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과 “옛 사람”(롬 6:6, 엡 4:22, 골 3:9)을 대조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인간의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구속되었다는 헬라의 이원적인 관점에 대해 항의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을 육체와 영혼의 단일체로 이해하는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실 그대로 전했다. 바울은 헬라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쇠약해지는 인간의 육체를 결코 모욕하지 않았다. 그는 육으로부터 분리된 영이 아닌, 부활의 몸을 기대했다. 사악한 육체의 족쇄로부터 풀어진 영원한 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부활된 육체 안에 깃들기를 바랐다.(고전 15:35-38, 고후5:1-5)

4:17 신체적인 육체와 부활의 육체를 말함에 있어서, 바울은 일련의 대조법을 사용하였다. 다가올 것들과 현재의 것들,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 중요한 것과 사사로운 것, 영광과 고통을 대조하여 설명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들을 축소시키지 않고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영원한 영광의 시간들과 비교할 때 현재의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현재의 고난들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들이 준비되어지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기꺼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눌수 있다

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4:18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고 한 이 절의 초반부는 인과관계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보이지 않기에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영원한 진실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러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에 달려있다.

바울은 결코 포기하거나 마음을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쇠약해질 동안에도 그의 영적인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하늘의 확신(5:1-5)

5:1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의 개념은 4:16-18의 확신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은 고전 15장과 살전 4:13-18에 나타난 미래의 삶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의 연장이다. 그는 인간의 이성 혹은 숙고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았다.

이 땅의 삶 동안에 사용되어진 육체는 죽음이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장막”이란 표현은 쉽게 거두고, 이동이 편하며, 다시 세울 수 있는 임시적인 처소를 상징했다. 이와는 반대로 바울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영원한 집”인 새로운 처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바울은 타락, 질병, 스트레스, 박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위해 안성맞춤인 영원한 집을 묘사했다. 이 말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 일수도 있지만 천국보다는 부활한 몸 자체를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

5:2 “우리가 탄식하는 동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의 몸(임시적인 장막)에 사는 것을 의미하고, “탄식”한다는 말은 ‘영원한 것을 갈망한다.’라는 뜻이다. “탄식”은 보통 고통의 느낌 혹은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갈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좀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바울은 모든 삶의 고난들을 뒤로하고 긍정적인 소망과 어떠한 고통도, 불안도 없는 하늘에 있을 부활한 몸을 마치 옷을 입듯이 입는다고 말했다.

많은 번역가들은 이 구절이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을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의 증거라고 본다. 그 때에, 믿는 자는 즉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중간 시간에 대한 이론들과 그 때에 존재할 중간상태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들이 있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논리적인 생각일 뿐,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다.

5:3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벌거벗음”(5:4)의 상태가 되지 않으려는 간절한 소망을 나타냈다. 바울은 그의 영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서리를 쳤다. 그는 새로운 육체가 되었을 때 벌거벗은 육체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헬라의 ‘영육 분리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헬라사람들은 선한 영이 악한 육체로부터 분리되기를 갈망했지만 바울은 원치 않았다.

죽음에 대한 관계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태가 정확히 무엇이든지간에,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것

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롬 14:8). 그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영적 수면’의 관해서는 전적으로 부인했으며, 또한 중간적인 상태의 대한 개념도 없다고 직접적으로 가르쳤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5:4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 갈 동안에는 “탄식”과 괴로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육신의 몸을 벗어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처소, 즉 영원한 몸과 함께 덧입혀지는 지는 것이다.

바울은 인간의 일시적이고, 한계적이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상황은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삼켜지듯이 사라질 것이라는 마지막 위대한 소망을 나타냈다. 바울은 육체로 부더의 해방을 원치 않았으며 영원한 하늘의 몸의 실재를 갈망해왔다.

5:5 바울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최후 목적을 준비하셨고,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미래를 위해 자신과 다른 믿는 자들을 예비시키셨다는 확신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부활의 삶을 위해 그를 예비시키셨고 모든 믿는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덧입을 것이라는 “보증의 표”로써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은 이미 예비된 부활의 몸으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위대한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

오늘 날의 헌신(5:6-10)

5:6-7 바울은 2:14절에서 시작한 그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의 사역가운데 시험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신실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오히려 더욱 자신감이 넘친다고 그는 표현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에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에 비하면 일시적인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7절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몸에 있을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했다.

5:8 바울은 그가 담대히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 6절로 되돌아왔다. 심지어 잠시 동안 고난의 시간을 살게 될지라도 바울은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 마주보며 영원한 집에서 주님과 함께 거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5:9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목표”를 세웠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은 위로와 자신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것은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고 섬겨야 하는 도전이기도 하다.

5:10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각각 그들의 삶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행함 없어도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바울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기위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가르쳤다. 만약에 한 건축자가 무너져 버릴 가치 없는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은 무너져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건물을 세운 건축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는 그들이 행한 대로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 시간에 그대로 보응 받게 될 것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오늘 배울 공과의 개요를 아래처럼 작성하여 보여줘라.

변함없는 확신(고린도후서 4:16 ~ 5:10)	
약해질 때 더욱 강해지기	4:16-18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기	5:1-8
그리스도의 심판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5:9-10

이 과의 주제를 읽을 사람을 정하여 읽게 하라. 오늘의 공부는 우리의 앞에 놓여 있을지 모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유지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라.

2. 학습용 공과 5과에 나오는 데이비드 부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라. 만약 데이비드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를 떠났던 이유를 물어본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서로의 답변을 나눈 후에, 학습용 공과에 나오는 이 과의 주제를 함께 읽어라.

학습인도

3. 오늘의 성경공부는 이 땅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대조하여 설명했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대조를 살펴보자: “약해 질 때 더욱 강해지기” 고후 4:16~18을 함께 큰소리로 읽어보자(학생용공과의 번역본을 함께 읽자). 여기에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가볍고’, ‘일시적인’ 것으로 지명했음을 지적하라. 고후 1:8~11절과 4:8~11절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여행 중에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생각하게 한 후에, 다음을 물어보자. “만약, 이러한 일들이 당신의 삶속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어떤 말로 이 고난들을 표현하겠는가? 그렇다면,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4:1, 16)’ 라고 두 번씩이나 표현한 이유는 왜 중요한가?”

4. 다음을 질문하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 노력할 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예: 비평적이고 힘든 일, 협동의 부재, 육신의 병, 육체적 한계, 정신적 고통, 의심들). 답변을 마치면, 바울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 토론해 보자. 17~18절을 참조한 후 다음을 질문하라. “어떠한 비교가 바울이 이 땅의 시형들을 보다 넓은 안목에서 바라보게 했는가?(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5. 두 번째 대조를 살펴보자: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을 자세히 비교한 고후 5:1-8절을 함께 큰소리로 읽어보자. 참가자들에게 한 절씩 할당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라. 인도자용 공과의 성경주석을 참조하여 더욱 풍성한 응답들을 기대해 보자.

- 1절 : 우리의 몸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 2~4절 : 바울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 5절 : 이러한 궁지에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가?
- 6절 : 하늘의 삶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가?
- 7절 : 믿음으로 사는 삶과 시각적인 확신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 8절 :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삶과 시각적으로 사는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좋다고 했는가? 당신은 바울의 생각에 동의하는가?

6. 3번째 대조를 주목하라: “그리스도의 심판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고후 5:9~10절을 함께 큰소리로 읽은 후에 다음을 질문하라. “어떠한 인생의 목표가 환난 중에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바울을 이끌었는가?”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이 오늘날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적용격려

7. 이번 주간에는 참가자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동성끼리) 파트너를 선택해 보자. 파트너들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노력에 대해 커피를 하며 나누는 것도 좋고, 한번 혹은 그 이상을 전화로 나누는 것도 좋다. 각 사람은 파트너의 영적인 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한다.

8. “주님, 큰 영광을 받으소서.” 와 같은 찬양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한다.

<p>[제 6과]</p>	<p style="text-align: center;">정말 멋진 삶</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5:1-1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5장</p>	<p>학습주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드디어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p> <p>탐구질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p> <p>교육목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속에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는 얼마나 이 혜택과 축복을 누리는지 생각해 본다.</p> <p>학습과 행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인도하는 권위임을 확신한다. -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눈다. - 성숙된 믿음을 발전시킨다. -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로 여긴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로마서 1-4장을 다루는 제 1단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이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인류의 비극적인 타락에 대해서 공부했다. 제 2단원 “가장 최선의 삶을 허락하다.”는 이어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다룬다. 이 장들에서 바울은 그의 토론주제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와 혜택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공짜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제 2단원의 1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한다. “정말 멋진 삶.”

로마서 5:1절의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바울이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에서 그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를 준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항상 다음의 질문을 해야 한다.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문장이 시작하는가? 이 단어의 뜻은 그 결과로, 혹은 그 결말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바울이 다루었던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에 대한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간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 그 결과로(therefore),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에는 엄청난 축복과 혜택이 주어

지게 된다. 실제로, 바울이 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4장에서 그가 설명한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5장에서 의로운 자의 결말과 혜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봉급인상, 완패, 상속, 혹은 새 직장과 같은 좋은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곧바로 우리 삶에 일어날 행복한 변화들에 대해서 상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원하는 바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해 그들의 삶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렇게 그리스도인 삶의 아름다운 혜택들을 누리게 될 사람에 포함시킨다. 바울은 가끔 그의 편지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의 쓸데없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지만 그 결과, 그는 결국 좌절하였고 비참하게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롬 7:24). 그 후,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감동적으로 설명했던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화해하심 그리고 용서하심의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극적인 경험 후에, 바울은 그 유명한 구절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그래서 바울이 설명한 새로운 삶의 결과와 혜택은 그가 개인적인 체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그의 편지 중에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문해석

오늘의 본문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의 본문을 2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다.

1)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혜택은 무엇인가? 2) 어떻게 이런 멋진 삶이 가능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혜택은 무엇인가?

5:1 1)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 “평화”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부정적인 뜻으로는 휴전이라는 뜻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죄의 본성과의 내적 전쟁은 모두 끝이 났다. 하지만 “평화”라는 단어에는 보다 긍정적인 뜻이 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내적으로 느끼는 화합과 고요함, 그리고 평온을 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전쟁의 종전을 뜻하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내적인 평온과 안전을 뜻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런 내적인 평화의 확신을 바로 1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이 평화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7). 이 평화는 폭풍우 후에 찾아오는 고요함 같아서, 마치 삶의 모든 혼란과 혼동들을 삶의 조용한 화합과 조화로 바꾸는 것과 같은 평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 14:27)”는 구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눈물로 자신의 발을 씻겨주던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눅7:50)”라고 말씀하시며 “평안”이라는 단어를 구원을 받았다는 뜻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다.

5:2a 2)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았다. “허가”라는 단어는 신분이 높은 고위인사에게 출입을 무제한 허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분은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허가와 옛날 이스라엘민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던 제한된 허가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매년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날, 대제사장은 큰 장막 뒤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로 혼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제물의 피를 뿌리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밖에서 기다린다. 속죄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좌를 상징한다. 그래서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이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되지 않았다. 만약 대제사장이 나오면 일 년후, 같은 날 대제사장이 다시 들어갈 때까지 이곳은 큰 장막으로 가려져 있게 된다.(레위기 16장 참조) 바울은 이런 비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한다.

특히 성경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 갈 수 있는 허가가 주어졌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회개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로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써의 삶속에서 계속해서 함께하는 은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은혜아래” 살고 있으며, “법아래” 사는 것이 아니다. (롬 6:14-15)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삶의 모든 기쁨과 완성은 결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룬 것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날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했고, 이 은혜는 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5:2b 3)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희망을 가졌다. 영어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약간의 불확신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나는 희망한다.”라고 말할 때는 “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행운을 빈다.” 혹은 “주문을 외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확신, 혹은 확실하다는 뜻이다. 특히 성경에서의 “희망”이라는 단어는 죽은 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뜻한다. 바울은 이런 확신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디도서 2:13)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서 희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히 6:19).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딤후 1:12).”

5:5 4)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그의 기적과 같은 아카페 사랑을 식량배급 하듯이 아박하게 배급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왕은 우주의 광대함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끝없는 광대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미치나이다.(시편 57:10)”라고 고백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요한1서 3:1)”라고 고백했다.

5:5b 5) 우리의 삶속엔 성령님께서 함께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속에 함께하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

드뇨?” (고전 3:16). 이런 우리 생활 속의 성령님의 함께하심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와 같은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19-20). 바울은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5:2-3, 11 6) 우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겨야한다. 로마서 4: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 Kauchaomai 라는 헬라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 자랑하다 혹은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야고보서의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바울의 서신들 속에서 이 단어가 30번 이상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의 3가지에 대해서 자랑하고 기뻐하라고 권한다.

- 1)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게 된다는 확신 (5:2)
- 2) 우리의 환란 (5:3)
- 3)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 (5:11)

어떻게 이런 멋진 삶이 가능할 수 있었나?

5:8 1)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기적과 같은 무한한 사랑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것이다. 6-11절은 마치 한편의 시처럼 적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이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에서는 3연 4행시 형태로 적혀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도”(5:6),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5:8),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5:10) 사랑하셨다.

5:6,8,10 2)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릴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5:6).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5:8).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5:10).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이런 멋진 삶이 가능하게 하셨다.

5:9,10,11 3) 왜냐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화목케 되었으며,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의롭다”라는 단어는 법정용어로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고 결백하다고 판정을 받았다는 뜻이다. “화목케 되다”라는 단어는 관계를 뜻하는 단어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적개심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바울은 가끔 이 두 단어들을 서로 바꿔가면서 사용하면서 구원의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5:9-10절에 사용된 “구원받다.”라는 단어는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사면을 뜻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우린 그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마지막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3가지의 다른 시제들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고(엡 2:8),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고후 2:15),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롬 13:11, 히9:27-28). 그래서 구원의 완전한 3가지 뜻은 다음과 같다: 1) 칭의 - 이미 구원받음, 2) 성화 -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음. 3) 영화 - 구원을 이루게 됨.

의미파악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가졌다는 사실은 결코 우리 삶이 앞으로 탄탄대로를 달리며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극히 정상적인 한 부분이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받는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겪었던 많은 고통들(고전 4:11-13, 고후 11:23-28, 12:9-10, 롬 8:31-39)이 바로 그 단적인 예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통들에게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면 오히려 이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5:3). 즉 다시 말해서, 비록 고통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뜻이지 결코 고통을 기뻐하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 결코 사탄의 것들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암이나 어린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은 아주 안 좋은 것이며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들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도록 놔두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릴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도록 놔두시는가? 우리 결코 이 질문에 대한 완전히 해답을 천국에 가기 전에는 얻을 수는 없다. 하지만 로마서 5장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도록 놔두시는 고통과 어려움은 우릴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릴 더욱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이다. 이는 마치 육상선수나 역도선수들의 훈련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고통 받을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인내심은 계속 성장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릴 영적인 훈련장에 넣어두고 튼튼하고 건강한 영을 가지게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다.

우리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 고통이 우릴 강하게 성장시키고 우리의 인성을 개발시키며,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5:3-4). 역시 비슷한 고통의 결과를 만드는 연결사슬이 야고보서 1:3과 벵전 1:6-7절에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릴 고통 속에 놔두실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릴 무의미함과 외로움 속에는 놔두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와 약속하시길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 13:5-6).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성경공부시간 전에 미리 다음의 문장들을 칠판에 적어놓는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적어놓아서 나중에 당신이 지목하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던지, 아니면 당신이 직접 큰소리로 읽어보자. 한 문장씩 읽은 후에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보자.

- 1)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질문하는 순간, 나의 행복은 거기서 중단하게 된다. - John Stuart Mill
-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행복해 질 수 있다. - Lincoln
- 3)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 Seneca
- 4)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를 하고, 뭔가를 사랑하며, 뭔가를 희망하는 것이다. - 무명

2. “정말 멋진 삶”이라는 제목을 잠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모두에게 질문하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한명의 지목해서 오늘 성경공부의 학습주제와 탐구질문, 학습목표를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자연스럽게 시작한다.

학습인도

3. 로마서 5:1절의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주목하자. 학습공과와 성경주해의 내용을 참조해서 이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

4. 한명을 지목해서 5:1-5절을 읽도록 하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든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평화, 하나님의 은혜, 기쁨, 희망, 사랑, 성령) 이 특징들의 뜻을 알아보고, 칠판에 적어보자.

5. 한명을 지목해서 5:6-11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얻는 유익에 대한 구절로써 우리의 삶이 왜 멋진 삶인지 설명하는 구절이다. 이 유익들을 칠판에 적어보자 (사랑, 의로움, 구원, 화목).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릴 위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을 우릴 위해서 하시겠는가?

6. 5:3-5절로 다시 돌아와서 모든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질문: 고통에 대해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믿는 자는 고통을 통해 강하게 자라게 된다. 믿는 자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다. 인도자 지침서의 “의미파악”을 참조하자.)

적용격려

7. 다음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오늘 성경공부의 내용을 요약해보자.

질문: 하나님의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심은 우리의 삶을 멋진 삶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8. 학습공과의 질문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나누어보자.

9 로마서 5:1-11절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좋은 구절들이 아주 많다. 한두 구절을 뽑아서 외워보자.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구절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보자.

<p>[제 7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생의 새로운 길</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6:1-9</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5:12 - 6:23</p>	<p>학습주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p> <p>탐구질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 삶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p> <p>교육목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내 삶에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고 이런 변화가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아본다.</p> <p>학습과 행동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인도하는 권위임을 확신한다. -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눈다. - 성숙된 믿음을 발전시킨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다음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한 요점들이다.

- 로마서 13:20 : 죄에 빠진 인류의 비참한 타락에 대해서 설명한다. 모든 이는 죄인이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로마서 3:21-26 :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고 회복케 하셨다. 우린 스스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다.
- 로마서 4:1-25 :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율법을 지키거나 종교의식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을 얻은 자들의 멋진 새로운 삶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런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삶이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6장으로 들어왔다. 6장에서 바울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신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멋진 삶을 살도록 모든 죄의 유혹들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신자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도전하고 있다. 로마서 6:1-19절은 오늘 성경공부의 중심구절로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구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5:20)”에서 2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면,

- 1)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6:1)
- 2)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6:15)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은, 바울이 이 2질문에 No!라고 대답을 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든지, 아니면 안 짓든지 선택의 자유는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아직도 죄의 유혹을 받고 간혹 죄를 지을 때도 있다. 우리 여전히 성령님께 의존해서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답게 윤리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른다. (이번 성경공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의미파악”을 참조한다.)

본문해석

오늘 본문은 2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어져 있다. 각 부분은 앞에 나누었던 2개의 질문에 각각 대답을 한다. 각 부분에서 바울은 이중비유법을 이용해서 질문에 대답을 한다.

첫 번째 질문: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 계속 죄를 지을 것인가? (6:1-14)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높은 수준의 신학을 볼 수 있다. 1세기당시, 유대인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울은 믿음과 신학 사이엔 절대로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진리를 그의 지식과 학문으로 증명하고 있다.

바울이 교육을 통해 배운 수사학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논쟁법이다. 이 기술은 가상의 토론대상자가 던진 질문에 글을 쓰는 작가 스스로 대답을 하는 기술이다. 바울의 시대에 바울이 세웠던 가상의 토론대상자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면, 우리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 죄를 더 지어도 괜찮지 않는가? 라는 질문은 마치 그 대답이 상식적으로 Yes라는 대답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잘못된 상식적인 질문에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6:2)” 이어서 그는 비유법을 사용해서 그의 대답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한다.

인생의 2가지 영향권에 대한 비유.

바울은 인간의 삶에는 2가지 부분이 있다: 1) 죄의 영향권 혹은 2) 하나님의 영향권. 어떤 이들은 이 2가지 부분

들을 옛날 길과 새로운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혹은 십자가의 세계와 부활의 세계, 악한 세계와 의로운 세계, 또는 죽음의 도시와 생명의 도시라고 표현한다.

어느 누구도 두 곳에 모두 속할 수는 없다. 어느 한 곳에만 속해야 한다. 로마서 6:1-14절을 읽고 바울이 이 2가지 영향권에 대한 비교를 살펴보자.

죄의 영향권	하나님의 영향권
사망	생명
십자가	부활
땅에 묻힘	땅에서 일어남
옛것	새것
악의 도구	의의 도구
율법	은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신자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바울은 3-4절에서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에 담기는 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죽음, 묻힘,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의식이라고 설명한다. 예수님은 이런 물에 잠기는 종교의식을 말씀과 손수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는 스스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마태 3:16), 나중에 지상명령에 침례를 포함하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마태 28:19). “침례”라는 단어는 물에 잠기다 라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땐, 예배시간에 구원초청에 응해서 예배강대상 앞으로 나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선포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 믿음의 고백의 증거로써 침례를 받는다. 하지만 바울시대에는 예배시간에 구원초청을 하는 시간 같은 것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할 때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침례를 통해 선포했다.

하지만 헬라어로 Baptizo라는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다라는 뜻으로써 바울은 물속에 완전하게 잠기는 의식을 통해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향권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새로운 명령을 따르게 된다.

- 1) 우린 이제 모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하나님과 함께 산 자이다. (롬 6:11)
- 2) 절대로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롬 6:12)
- 3) 우리의 지체나 능력을 죄의 도구로 주지 말라. (롬 6:13)
- 4)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드러라. (롬 6:14)

이제 우린 새로운 법을 따르게 되었다. 왜냐면 죄는 더 이상 우릴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14) 그리스도와 함께 우린 “넉넉히 이기느니라” (8:37).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6:15-23)

이제 신자는 은혜의 영향권 아래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는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시 은혜로 사함을 받지 않는가? 역시 바울의 짧은 대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6:15)”이다. 그리고 그는 역시 비유법을 통해 그의 대답을 설명한다.

2가지 노예신분에 대한 비유

바울은 노예라는 예를 들었던 이유는 그 당시 노예제도는 너무나 당연한 제도였다. 자신의 빛을 갠기 위해 스스로 노예시장에 몸을 파는 사람들은 그 당시 전체 로마제국과 이태리 인구의 85-90%를 차지했다. 바울 시대에 노예는 마치 소나 양처럼 재산의 한 부분으로 취급했다. 바울은 이런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께 노예가 된 자들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노예는 절대로 2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노예제도에는 아주 안 좋은 면이 있다. 모든 행동과 모든 소유는 주인의 소유라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노예의 생명이나 죽음, 고통과 슬픔까지도 모두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노예처럼 예수님을 섬긴다는 예는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은 19절에서 잠시 멈추고는 이에 대한 변명으로 인간의 예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단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초신자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라고 설명한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의 노예라면 우리 아주 더럽고 잔인한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라면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의롭고 성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혹은 악독한 사탄을 섬기느냐는 문제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노예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의 주인을 선택하라: 죄 혹은 의. 중간은 불가능하다.

죄인들은 자신들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신자들에게 인간의 권리를 포기한 자라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율법과 의식에 자신을 얽매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한 8:34-36)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그의 첫 번째 비교에서 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로마서 6:15-23절의 두 종의 모습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

죄의 종	의의 종
사망에 인도됨	생명으로 인도됨
불결	의로움
더 큰 부정	더 큰 성화

의에서의 자유
부끄러움
죄의 결과: 사망

죄에서의 자유
우월
선물:영생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한번 보자. 특별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에 비교해서, 사탄의 종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의 보상”(6:23)이다. 바울이 이 단어를 헬라어로 opsonia라고 표현했다. 이 단어는 전쟁에서 군인이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보상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이런 죄의 노예의 보상은 죽음이다. 그래서 사탄은 죽음을 주는 주인이지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주인이다.

6:17절의 “교훈의 본”이라는 문장은 기독교 가르침의 요약 뜻을 뜻한다. 이는 초신자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이 가르침을 따르기로 헌신하면, 그들은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미파악

“성화”란 무엇인가? 바울은 “성화”라는 단어를 로마서 6:19,22절에서 사용하고 있다. 헬라어로는 hagiasmos이며 이는 거룩 혹은 신성화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로써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칭을 받은 순간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로 살게 되고, 날마다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완벽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나”(요한1서 5:18).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요한1서 3:6). 위의 2구절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헬라어의 문법을 조금 공부한다면 위의 2구절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동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행동을 나타낸다. 요한1서의 구절에 나온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고,” “범죄치 아니하는 줄,” 등과 같은 동사들은 모두 현재형으로써 정확히 번역하자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지니,”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라고 해야 한다.

가끔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한다. 하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 비록 윤리적인 죄를 종종 지을 때는 있지만, 진정한 신자는 죄를 습관처럼 짓지는 않는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립 3:12). 야고보는 또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았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야고보서 3:2).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된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작은 손가락을 들고 다음의 질문을 한다. “이 손가락으로 뭘 할 수 있죠?” (차를 젖는데 사용한다. 약을 먹는데 사용한다.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사용한다. 등등) 오늘 성경공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축복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명의 지목해서 학습공과의 핵심주제를 읽으면서 오늘 성경공부의 핵심주제를 설명한다.

학습인도

2. 로마서 성경공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인생의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공부에서 배우게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제 6과, “정말 멋진 삶”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익이었음을 복습한다. 그리고 그 유익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질문한다.

3. 한명을 지목해서 로마서 6:1-4절을 읽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던 자들이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들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내용과 바울의 반응을 서로 발표해 보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공짜표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한다. 바울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 모든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반박한다. 학습공과의 “자유, 자유, 드디어 자유”의 내용과 지도자 지침서의 “성서주해”의 내용을 참조한다.

4. 한명을 지목해서 로마서 6:5-14절을 읽고, 나머지는 들으면서 오늘의 핵심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읽기가 끝나면 지도자 지침서의 “2가지 영향권에 대한 비유”의 내용을 참조해서 방금 읽었던 구절을 설명한다. 그리고 “죄의 영향권”과 “하나님의 영향권”을 비교해보자. 많은 신자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들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힘들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해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배워야 한다. 어떤 이들은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도 그리스도인으로써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칠판에 다음의 문장을 적어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출하셨다.” 학습공과의 “예수님 안에서 살기 (6:5-10)”의 마지막 2문장을 참조하자. 그리고 지도자 지침서의 “2가지 영향권에 대한 비유”에 있는 4가지의 새로운 명령들을 나누어보자.

5. 로마서 6:15-19절을 읽고 바울이 사용했던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자. 우리가 죄의 노예신분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의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므로, 우리는 이제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적용격려

6. 학습공과의 “이 진리를 적용하기”에 있는 5가지 문장들을 사용해서 오늘의 성경공부의 핵심을 요약해 보자. 5명을 지목해서 각자 한 문장씩 큰소리로 읽게 하고 다음의 3가지 보기 중에 하나를 뽑도록 한다.

1) 5문장 모두를 동의함. 2) 5문장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몇가지는 바꿀 수 있다. 3) 5문장에 동의하지 않다. 몇 명의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이유를 물어본다. 그리고 각 문장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7. 학습공과의 질문 1번과 2번을 한다.

8. 성경공부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전한다.

<p>[제 8 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나님의 삶은 당신 안에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8:1-1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7:1-8:11</p>	<p>주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죄에 굴복한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도 아니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데에 있다.</p> <p>탐구질문 어떤 길을 통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알아보자.</p> <p>실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확증한다 * 성장하고, 활력있는 믿음을 개발한다 * 일을 결정하고 봉사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포함한다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당신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리고 무엇이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내면의 얘기가 우리의 신앙적인 반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반적으로 넓게, 그리고 깊은 열정 안에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며, 발생시켜야 한다.

로마에 머물며 공부하고 성경 속에 반영되었던 이 시기는 바울의 얘기들을 통해 많은 방법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또한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난다. 자, 이제부터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얘기 된 오래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에게 신학과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삼을 수 있는 모델이 있다.

로마서로 보내는 서신서가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많은 생각들을 적었다. 로마서에는 바울의 가장 면밀한 신학에 관한 그의 사상들이 적혀있는데 특히 그리스도론에 관하여 적혀있다. 로마서에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결론” 과도 같은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의 생각에서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로마서에 있는 몇몇의 독자들은 바울이 전에 말한 구약의 생각들과 쉽게 연관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의 독자들이 유대인이 아닌 문화적 환경에서 자라 왔으므로, 대다수는 복습이 필요했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신학과 삶 안에서의 구약의 율법과 같은 조금은 어려운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했다.

우리가 이 과를 공부함에 있어, 우리는 우리만의 신학적 생각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이들과 얼마나 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문 해석

확립되지 않은 실상을 읽. (7:1-25)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도 구약 시대의 율법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구약의 율법은 구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 주는 경계선을 제공한다. 바울은 명확하게 말했다. “…….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라 불리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양심이 얼마나 형성 되었으며 형성되지 않았는지 이해해야 한다. 구약의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그 목적대로 잘 확립되었지만, 바울의 양심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로마서 7:14-20 절을 읽어보자. 누구나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험을 해 보았을 것이다. 바울 에게는 죄를 아는 지식이 단순히 죄를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그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그 자신에게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했다. 하나는, 그가 해야 할 것을 자각 하는 것이었으며, 그러나 그는 그의 만족함에 있어서는 끝마치지 못했다. 반대로, 그는 그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식했는데 그와 그의 상황 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바울의 회심은 우리 한 사람 한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바울이 자기 자신과의 분투노력했던 정체성은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서 일 하셨던 능력을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로마서 7:24-25 절의 믿음에 관한 참회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진술로 손꼽힌다. 이 구절은

바울의 전적인 실패를 앞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높은 길로 걸어가기 (8:1-11)

바울은 7장에서 나타낸 그의 생각을 계속 이어 8장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말했다. 바울은 앞으로 그의 생각을 당길 것에 강조하여 말했다.

8:1.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바울의 생각가운데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상징이다. 이 뜻은 그래서, 이전의 전술한 것을 토대로, 결말은 이것이다 와 같은 말인 것이다. 바울의 큰 개념인 한 사람의 생애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전의 죄책감과 정죄를 뛰어넘는 것이다.

8:2-3. 삼위일체를 표현하며 로마서 8장을 열어가는 바울을 살펴보자. 그는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언급했다. 삼위 일체 되시는 각각의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의 구원의 작용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에 자유 함을 가져다주신다. 이 자유는 특별히 율법 안에 내재하는 사망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율법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8:5-8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바울의 또 다른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는 이분법이었다. 여기 바울이 생각했던 낮은 성질과 높은 성질, 즉 육체와 영혼의 두 가지 생각이 있다.

육체는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를 끌어 내리는 죄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이 세상 쪽으로 눈을 향하게 한다. 초자연적이거나 공동체의 경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최소화 한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행동들은 그녀나 또는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개인의 생활을 증진적으로 살 수 없게 실패하게 만든다. 비뚤어진 삶을 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중요가치와 강조하는 것들로부터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점검해 보자.

이 삶은 바울이 불렀던 “사망”으로 치닫게 된다. 이 구절의 중요성은 로마서 6:23절의 나온 것과 동일하다. 이 시대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사는 유익을 잃게 한다.

8:9. 로마서 8장에서 이 메시지의 포인트에서는, 바울의 메시지가 동요를 일으킬 수도 있게 보인다. 아마도 바울은 동요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의 글을 읽는 독자들이나 관중들이 절망하기 전에, 바울은 의기를 드높일 생각을 제시했다. 믿는 자들은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과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 생각인가!

9절에서는 바울의 삼위일체에 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온다. 이 참조 포인트에 따르면, 바울은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 안에 살아야 하며, 또한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삼위일체에 관한 이 생각은 우리 안에 내재 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게 한다.

8:10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바울은 예수님께서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 영향을 끼치시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 가정하여 말했다.

8:11 바울은 종종 부활의 힘에 대하여 강조했다. 다시 한 번 가정한 것을 살펴보자. 바울의 논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 이라고 말했다.

의미파악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그들 마음의 깊은 곳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을 믿음의 부족이나 믿음 안에서 아직 미성숙 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이정표라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럼에도 그 흔들림의 영향과 그 방향을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우리를 흔들며 좌절되며 낙망하게 만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죄의 힘이 우리의 인격과 의지의 분투노력 가운데서 이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를 흔드는 그것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민감함을 정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바울은 우리가 결코 혼자서 아님을, 그렇지만 죄의 유혹에 분투노력하는 우리를 이해하기 원했다. 우리는 하나님인신 성령님의 도움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활기를 돋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부활의 힘이 발산 되는 것으로부터 온다. 이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분투노력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 왕국 사상에 도달 하지 않는 것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생용 공과에 있는 서문에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서문에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마지막 문단을 읽자.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기 위해…….” 학생용 공과의 주제를 한 명에게 읽도록 하자.

학습 인도

2. 로마서 7장에서 영적으로 분투노력하는 것과 대조하여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나타냄이 포인트이다. 이 발견은 7:24절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8:11절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다. 승리의 진리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한 사람이 질문을 읽도록 또 다른 사람이 답변을 읽도록 하자. 학생용 공과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8:1-4)” 의 타이틀 아래 있는 설명을 이용하자. 바울의 질문이 그의 회심 전에 말하여진 것인지 또는 그의 회심 후에 경험인지 간단하게 토의해 보도록 하자. (특히 “로마서 7:13-25절” 과 뒤 따르는 두 문단을 자세히 보도록 하자.)

3.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를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율법이 아닌 새로운 삶을 주신다. 다음의 두 단어를 칠판에 적자. 1) 율법 2) 관계.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켜야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동기에서 행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보자. (가르침 계획 -많은 다양한 방법들에 5번이다.) 학생들에게 믿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길을 걷는 것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의 삶에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자.

4. 세 명의 사람들을 지목하여 다음 성경 구절을 크게 소리 내어 읽게 하자. 첫 번째 사람은 로마서 8:1-4절을, 두 번째 사람에게는 로마서 8:5-10절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는 로마서 8:11절을 읽게 하자. 다 읽은 후에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용 공과 의 “성경 주석” 의 정보들을 이용하여 구절들을 설명하자. 로마서 8:1-4절을 함께 나눌 때 두 가지 율법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자. 로마서 8:5-10절을 함께 나눌 때 두 가지 사고방식과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과 “성령 가운데 사는 것” 의 대조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자. 또한 8:11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의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과 분투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사실을 강조하자. 우리의 도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매일 매일 내어드리는 것이다.

적용 격려

5. 학생용 공과에 “질문들” 을 학생들에게 적합한 타이밍을 맞춰 물어보도록 하자.

6. 누군가에게 탐구질문을 크게 일게 한 후,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묻자. 원활한 토론을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이용해보자.

-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 8:1-11절의 핵심질문의 대답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행동은 왜 그럴까?
-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도록 돕는 분은 누구신가?
-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살도록 허락하는 사실이 암시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p>[제 9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승리하는 삶</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8:12-39</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8:12-39</p>	<p>학습주제 고난을 겪으며 시련을 겪는 데에서 예외 일 순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p> <p>탐구질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p> <p>학습목표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보장받았다.</p> <p>실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확증한다 * 성장하고, 활력있는 믿음을 개발한다 * 몸과 영혼의 필요들을 채워줌으로써 예수님께 순종하고 봉사한다 * 성기는 지도자로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승리하는 삶!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책에 널리 퍼져있는 하나의 약속 같은 것이다. 승리하는 삶에 관한 설교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던지 사람들은 설교의 주제가 주로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약속을 주는 것, 재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메시지인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전파하는 것과 단지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우리도 또한 바울이 설명하는 로마서 8:12-39절에 대하여 공부할 동안 이 어려움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소수의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법령 아래 종교적인 행위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다. 그 중의 얼마들은 그리스의 문화로부터 들어 온 것이고 다른 얼마들은 로마가 정복했던 식민지의 문화들로부터 들어 온 것이었다. 가지각색의 종교들은 신비한

종교들 이라고 불렀으며 단순히 종교를 뛰어넘는, 직접 참여하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쾌락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 또한 로마의 문화는 황제를 숭배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전반에 깔려있던 그런 행동들을 같이 하지 않았다. 게다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상을 전하기 원했을 때에 그들이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경험했다.

바울은 그들의 상황을 꽤나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몇몇 미국의 교회와 사역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지긋지긋한 자기중심적 방법들도 알고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바울은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시대의 문화를 종종 단순히 반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직 그들은 교회용 용어를 사용한 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지만.

즉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이 과를 공부할 동안 신약 성경을 따라서 우리의 시각을 간직하는 데 주의하자. 로마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에서 바울은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번영을 추구하는 문화처럼 감자기 부유해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참다운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 인생에 관한 비꼬는 것이 아닌 그의 참된 해석은 인생은 기복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말하기를 얼마나 어려워하는가! 바울은 동시대의 살고 있는 침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이슈에 관하여 생각해보며 적절히 반응하며 행동할 것을 원했다.

본문 해석

성령의 인도하심.(8:12-17)

8:12 바울의 “그러므로” 의 사용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다시 확인하고 전 장의 공부 한 내용을 복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전 장의 공부한 내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백하게 나타내었다. 하나님의 영 안에 그 밝은 빛 아래 거하는 믿는 자들의 책임은 세상의 것들에 끊임없이 매력을 느끼는 것 대신에 우리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8:13 이 구절에서, 바울은 알아보기 쉽도록 분류별로 간단하게 나누어 놓았다. 그는 죽음과 삶, 육체와 영의 이분법에 관하여 그의 생각들을 엮어 놓았다. 이 세상의 원동력은 - 정욕, 권세의 남용, 받기만 하며 주지 않기, 자비를 베풀기보다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육체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모든 삶 - 결국 죽음의 항구에 이르게 된다. 삶, 진정한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에서 출발한다. 이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마음과 생각의 만족함을 표현하고, 의심이 아닌 신뢰의 바탕을 두어 관계를 형성하며, 다른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8:14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마도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 보다 이 구절에 대하여 더 감사했을 지도 모르겠다. 로마 황제 시대의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노예들이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했다. 후원해 주고, 격려하며, 따뜻한 관계를 형성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었다. 외로움, 걱정,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그들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었다.

8:15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하는 긴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은 부모가 생물학적으로 친 자식을 나은 것과 같은 상태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다.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여 입양하는 사람들을 지켜봄에 따라 나의 부모로서의 감정 또한 새로운 감정을 품게 되었다. 입양하는 자들은 신중하게 입양하려는 아이의 부모가 되기로 했고 모든 노력을 쏟았다.

입양된 아이들은 친 아이에게서 항상 나타나지마는 앓는 기쁨과 따뜻한 관계에 대하여 반응한다. 입양된 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환경으로부터 구조되었고 그들이 항상 꿈꾸던 새로운 세계로 인도되었으며 그들이 살고 있던 경험과는 다른, 보호를 받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입양을 한 부모의 입장에서와 입양이 된 아이의 입장에서처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자의 영”을 이해하기 원했던 것이다.

8:16-17 믿는 자들 안에 살아 계신 성령님께서 각각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하게 도와주신다. 이 직각적 이해는 어쩌면 한 순간에 올지도 모르겠다. 믿는 자들은 바울이 쓴 이 구절에 대하여 가끔 의심을 하거나 잘못 이해 할 때가 있다. 그렇더라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도우셔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느낄 수 있게 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더욱 깊이 강조하기 원했다. 친 자식과 같이 입양된 자녀들 또한 부모님이 가진 소유물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영광을 이해하기 (8:13-30)

이 구절들은 시대의 구속되어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참고 견디게 하며 격려해주는 말씀 중 하나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속에서의 사람들은 오늘날 번성하고 잘되게 하는 메시지에 관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귀중한 가치를 이 성경 구절에서 발견 할 수 있다.

8:18 바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 한 후에야 그 다음에 겪게 될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시작하였다. 바울은 마태복은 5:11-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박해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 구절을 접목시켜주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감금과 협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다룰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더욱 강조하였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 제공하신 영광에서 조금이라도 녹슬게 하지 못한다.

8:19-23 바울은 이 구절에서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큰 이미지 즉 창조물로 확대하였다. 이런 연관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을 격려해 준다.

삶의 풍파 가운데 분투노력하는 것과 고난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만 시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가운데서 분투노력하는 최상의 것에 시각을 두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죄 때문에 피조물이 타락하게 된 문제와 결과에 관하여- “씩어짐의 종노릇하는”-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로마서 8:20) 그 결과로,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게” (로마서 8:22)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 (8:23)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고통가운데에서 “신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해야 하며 격려 받을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피조물도 또한 “신음하고” 있으며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8:24-27 누군가로부터 희망을 앗아간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과 그의 인생의 중요한 의미도 빼앗을 수 있다. 희망을 준다면,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 시킬 수 있다. 희망을 얻는다면, 당신의 삶은 새로워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여기 바울이 희망과 믿음을 함께 연관시켰다. 때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앞날을 내다보고 우리의 미래에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다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음하는” 의 정확한 묘사는 우리가 가끔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같다. 어떠한 문제들은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울은 인생에서 고난을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 것을 가르쳤다.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아버지께 전달하시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8:26) 중보기도는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깊은 단계인 것이다. 희망과 믿음을 쌓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픈 경험을 통과해야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며 믿길 원하시는 것이다.

8:28-30 바울은 다시 한 번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어려움” 을 언급했다.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선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밖에 머문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로 설명 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인생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는 강조하기를 길게 보아야 하며, 큰 그림을 그려야 하며, 그리고 문맥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다른 흔적은 하나님께서 아주 나쁘게 보이는 일도 좋은 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다 - 우리의 성격을 개발시키시거나, 믿음을 굳세게 하시거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과 같은 것들 말이다.

바울의 “예정론” 에 관한 번역은 문맥과는 벗어난 경우가 많다. 신학적인 시스템은 구원에 관하여 특별한 사상들을 추가했으나 사실 바울의 의도는 벗어났다. 이 말은 포함하는 방식보다는 제외된 방식을 종종 많이 사용하곤 했다.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끌어 당겨서 그에게 오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과정을 말한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은 (우리는 모두 각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랑의 힘 (8:31-39)

8:31-39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8:32-34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보호하심, 부양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강조했다. 참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 이시다. 하나님은 몸소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는 모델이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정죄도, 어떠한 책임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8:35-39 이 구절은 첫 세기의 그리스도인 찬송가에서 불렀던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시인적 기술로 바울은 다음 질문을 생각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역동적인 근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바울을 끊으려 한 것을 바울은 경험했는지도 모르겠다. 첫 번째 간증에서부터 바울은 그 자신을 위해서 결론지으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아무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미파악

당신은 다음의 말들을 들어보고나 누군가에게 말해 본 적이 있나?

- 인생은 어렵고 결국 당신은 죽을 거야.
- 그냥 기다려봐. 다른 방법을 통해 뭐 어떻게 되겠지.
- 지금까지는 만사가 다 잘되 보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짜 인생을 평가한다면 매일 매일 살아가는데 겪었던 고통과 고난들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 고난, 분투노력했던 것들은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지만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만을 겪는다면 우리 안에 열등의식이 자리 잡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정이라고 시각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 해 볼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은신처가 되는 종교라고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말해, 기도 생활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만 우리 삶의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기도가 우리가 우리 됴의 자연스런 한 부분이며 이미 고난을 겪었을 때에도 우리 자신을 기도 속에서 찾은 것인가? 혹은 기도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나쁜 소식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마지막 두 질문에 “예” 라고 대답했을 때, 우리 삶의 하나님의 임재의 관한 바울의 생각을 우리 삶에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임재는 악과 고통을 물러가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것들과 맞설 수 있게 우리에게 힘과 창조적인 생각들을 준다.

삶에 의해 압도될 때 그제야 삶을 정복 하려고 시작한다. 단순히 견디는 삶은 인생을 즐기게 하는 방법을

준다. 나의 친구가 신앙을 고백한 간증에 따르면 그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삶을 되돌아 본 후의 삼 일은 그 전까지 그가 살아온 모든 시점보다 훨씬 중요하며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우리의 문화가 자주 묘사하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의 모든 것일까? 아마도 아닐 것 같다. 우리의 시대의 문화에서는, 남의 주목을 끄는 자리에 위치하게 되며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이기다”의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로마서 8:12-39절, 바울의 묘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핵심적 정의일 것이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의 뿌리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다.

교시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기말 고사를 보기 전에 걱정했던 초조한 심정을 기억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어 보자. 큰 2단원의 복습을 돕기 위해 보는 이 기말고사에서 여러분 모두는 A 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오픈 북 테스트이기 때문이다! 자 마음을 가다듬고, 자진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이나 학생용 공과로부터 답을 구한 다음 발표하게 하자.

- 1)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로마서 5:1절을 보자)
- 2) 믿는 자가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얻는 유익은 어떤 것일까요? (5:3,4절)
- 3)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많이 죄를 짓는 것이 옳은 것일까? (6 : 2 절)
- 4)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8:38-39절)

학습 인도

2. “승리의 삶” 이 큰 2단원의 마지막 단원인 것을 그룹들에게 상기시켜 주자. 이 단원을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학생용 공과에 나타난 개요 정리를 기억하자. 3가지의 개요 정리를 칠판에 적어보자. (수업 계획- 다양한 학습 활동의 2번째 단계를 보자)

3. “죄를 이기는 승리(8:12-14)” 를 참조하자. 누군가가 성경 구절을 읽고 있을 동안 나머지 그룹들은 비교하면서 잘 들도록 하자. (육체와 영; 죽음과 생명) 다음의 비교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을 들어 보도록 하자. (우리가 만약 육체를 따라 산다면, 죽음이 최후의 결과일 테고 우리가 만약 영을 따라

산다면, 생명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학생용 공과에 질문 2를 물어보고 대답들을 들어보자.

4. 다음 개요인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8:15-17)”를 살펴보자. 그룹 멤버들에게 두려움을 나타내는 동일한 언어들을 물어보자.(예상 답변들 : 걱정, 무서움, 공포, 겁에 질림) 누군가에게 8:15-17절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는 동안 나머지 그룹 멤버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의 제안을 귀 기울여 듣도록 하자.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 하나님께 가까이 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들의 노예로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을 강조하자. 우리의 깊은 필요 중에 하나는 속하여 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안전함을 느끼며 거기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

5. 세 번째 개요인 “시련을 이기는 승리 (8:18-39)”를 참조하자. 개인적인 문제로 분투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을 해 주고 있음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 4명의 사람들에게 다음을 읽도록 하자. (1) 8:18-25; (2) 8:26-27; (3) 8:28-30; (4) 8:31-39. 성경 구절이 읽혀 질 동안에, 학생용 공과 안에서 그들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구절을 적어도 두 개 이상 표시 하게 하자. 성경을 읽은 후에 무엇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보였는지 질문해 보자. 그룹 멤버들이 생각하고 있을 동안 칠판 한 쪽에 참고가 되는 성경 구절을 써 두자.

적용 격려

6. 칠판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 참조들을 참고하자. 학습주제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과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자.

7. 학생용 공과의 질문들을 적극 적으로 참여하게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토론 해 보자.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생활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장려하자.

8.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자. “하나님 아직도 고난과 분투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하는 삶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p>[제 10과]</p>	<p style="text-align: center;">그러면 유대인들은?</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9:1-7; 10:1-13; 11:1-2 상반절, 25-32</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9-11장</p>	<p>학습주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되고 있다</p> <p>탐구질문 지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실까?</p> <p>학습목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바울의 토론의 발자국을 함께 따라가 보고,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공부하여 요약해보자.</p> <p>실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확증한다 * 성장하고, 활력있는 믿음을 개발한다 * 몸과 영혼의 필요들을 채워줌으로써 예수님께 순종하고 봉사한다 * 섬기는 지도자로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최근의 주석서는 왜 사람들이 지연하며 구물거리는 지 고려했었다. 그 이유는 완벽주의로 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감의 부족이었다. 나는 내가 이 과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로마서의 이 부분은 보통의 침례교인들의 지식과 이해에 충격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의 공부는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첫째로 바울이 전 장들에서 말했던 것과는 거의 다른 주제로 보인다. 또한 12장에서는 또 다른 주제가 나온다. 우리들은 전 장의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이 장 다음의 바울의 생각들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둘째로 이 장들에는 좀 무거운 개념들이 담겨져 있다. 이 장들의 생각들은 깊은 토론을 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 특히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관한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말이다. 셋째로 이 장들과

대립되는 해석들이 있다. 넷째로 이 장들의 연결을 이해하며 읽기가 결코 쉽지 않다. 바울은 이 장들에서 논쟁을 위한 라비의 접근방법을 사용했다. 그것은 바울의 중요 포인트, 결론, 그리고 주제가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다. 랍비들이 사용하였던 히브리식 방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방법이었는데 기억하자. 당신은 로마서 9-1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에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이르도록 하여 보자.

본문 해석

우리의 슬픔을 직면하기 (9:1-7)

9:1-2.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이 말은 수년 동안 유명한 말이 되었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감정이입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들의 대화 가운데 더 자주 사용 되게 되면, 그것은 더욱 초취하게 되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결국은 파멸되게 된다.

당신을 깊은 슬픔에 잠겨 있게 하는 당신을 혼란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당신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만드는 그 문제의 시초는 무엇일까? 바울은 그의 실질적 공부를 통해 우리에게 그 슬픔을 끝낼 수 있으며 끝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교통하시는 것에 대한 바울의 슬픔은 로마서 8:18-27절로부터 반영되었다.

9:3. 바울의 슬픔에 더욱 더 슬픔을 가했던 것은 그들 자신은 느끼지 못하는 슬픔에 대해 바울은 느끼며 그들을 생각할 때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족함이 바울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바울은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완고한 태도를 바꾸고자 했다. 바울의 파문- “저주받은” 이라고 번역된 - 은 바울의 슬픔과 걱정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9:4-5.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정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 축복을 하나 하나 차례로 열거하며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가졌던 특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바울은 메시아가 그들의 혈통으로부터 나온 것을 첫 번째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연결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아들이는 것을 부인하였다.

9:6-7. 이스라엘이 예수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행동의 실패가 아니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아직도 역사하신다는 것의 흥미로운 주제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을 주목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자손으로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다른 의미는 “약속의 자손들”을 가리킨다. (로마서 9:8)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증명하는 자들이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 (10:1-13)

우리는 바울이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슬픔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론으로 도달할 필요가 있다. 그가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 자신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을 알고 슬퍼하였다. 그의 슬픔은 오직 그 당시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함이었다. 그의 슬픔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거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함이었다. 따라서 그의 의견은 좀 더 큰 규모로 시작되었다. 그들을 향한 반응을 살펴보면서 좀 더 이 큰 규모에 대해 알아보자.

10:1.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의견과 생각을 거부 할 때 그들을 거부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그의 생물학적 동족들, 사회 친척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열망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그들을 경멸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10:2-3. 초기 로마시대에 바울이 대화적 기술을 사용하며 논쟁에 반박해 질문을 던졌듯이 이 부분에서도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는 다른 편에 서서 말하며 그들의 삶과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필수적으로 점검이 필요했다. 확실히 그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던 믿음과 삶을 발견하는데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10:4-8. 바울은 이 부분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고 있다 :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후의 율법의 이루심이 되신다.

5절에서 바울의 모세에 대한 언급은 신명기 30:11-14절을 사용한 것을 보여준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이 해야 할 무엇인가도, 할 수 있는 것도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 같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는 데는 아무 것도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울의 편지를 읽거나 듣는 그리고 그들이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개개인에게 임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 밖에는 아무 것도 필요없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10:9. 이 간단한 사실이 초기 뻑뻑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아는가? 이것은 중요한 뜻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필수적인 결론에 이르게 하는데 이 단어들만 묘사하는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육신의 속죄하심과 죽음에서 부활하심이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10:10. 여기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발견할 수 있다.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삶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라고 이 신앙 고백과 같이 전해 주는 것이다. 이 중요성은 다음의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것이 내가 나 된 바이며, 이것이 내가 할 본분이다.

10:11-12. 바울은 9:33 절에서 인용했던 이사야 28:16절의 생각을 재차 반복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는 그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 남겨지지 않는 바이다. 또한 이 믿음의 행동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유대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사용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세계의 인종, 언어, 그리고 문화적 배경도 포함해서 생각 해 볼 수 있다.

10:13. 우리가 때때로 구원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걸쳐 발전되어 왔다. 계획이라 부르는 것은 이 구절에 기초에서 찾을 수 명백하게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때때로 죄인들의 기도라 부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계획들 중 일부는 좋은 의도로 준비되었는데도 이 성경 구절과는 가까운 연관을 나타내지 않는다. 시간을 가져라. 예를 들면 복음을 탐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관찰해라.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소개하셨는지에 대한 많은 방법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3절은 주님의 이름을 실질적으로 들릴 수 있게 부르는 것을 요구하는가?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은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하시는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하고 있다는 포인트에 이르는 것이다. (로마서 8:26)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원하고 표현 하고 싶은지 말로는 표현 할 수 없음을 발견한다. 흥미롭게도 이 구절에서 구원의 약속은 요엘 2:32절에서 인용되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적용 한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11:1-2 상반절, 25-32)

이 말씀의 근원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바울이 이 주제와 연관하는 퍼즐 조각을 어떻게 명료하게 풀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1:1-2 상반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하게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믿음의 남은 자들인, 즉 그리스도인들인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하나로 그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1:11절에서 바울은 신학적인 이스라엘의 위치를 걸려 넘어진 상태로, 완전히 쓰러져서 망하지 않은 상태로 묘사하였다.

11:25-32. 이 성경 구절들은 이 과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요지가 있다. 퍼즐 조각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의미합니까? 2) “온 이스라엘”은 인종적 이스라엘과 각각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에 이러날 것입니까? 3) “온 이스라엘” (11:26)은 각각의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맞는 중대한 의미를 나타냅니까?

이런 질문들에 관한 대답은 그들이 바울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아마도 바울은 논리적인 그의 생각을 다 나타낸 후에 최상의 소명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의 뜻의 대답을 “신비한 비밀”이라고 나타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하여 어디에 속하였던지 바울이 그의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증인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의미파악

이 해석을 어떤 행동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 몇 가지 의견들이 있다. 1)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기. 2) 구원이 무엇인지 계속하여 반영하기. 3) 누가 구원될 수 있으며 누가 그럴 수 없는지에 질문 고려하기. 다른 방법으로 이 질문을 말해 보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나 그룹이 아닌 사람들이 누구일까? 4) 이 이해가 우리의 선교와 전도에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5)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란 무엇일까? 6) 어느 곳에 하나님과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에너지를 합당하게 쏟을 수 있을까?

로마서는 특별하게 유대인들에 관한 것보다 하나님과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 예가 되는데 -아마도 가장 굳고 어려운 예가 되겠지만 -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논리를 뛰어 넘지 말아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가 선교를 확장할 곳인 현대 이스라엘을 최초의 선도자로 사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로마서 9장~11장을 현대의 이스라엘을 다루고 이끌어 가는데 사용해야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의 바울의 암시는 그들이 매우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려하는 것을 넘어 갔던 것이다.

이 장에 나타난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책임이 따르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풀어질 무언가가 반드시 남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장들로부터 바울이 이중법을 사용하여 마무리 짓는 로마서 11:33-36절까지 우리 자신을 일하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가장 최고의 해석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순한 사실에 도달하여 삶을 살아야 한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칠판에 다음과 같이 써보자. “무엇이 당신에게 슬픔을 가져오는가?” 질문을 물어보자. 우리가 공부한 “유대인들은?” 이 과가 우리에게 단순히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느끼고 있던 바를 알게 하는 기회를 줌을 기억하자. 로마서 9장은 바울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데 거부한 슬픔으로 열어가고 있음을 강조하라. 슬픔은 누구나 다 겪는 감정인 것이다.

몇몇 슬픔에 관한 연구는 슬픔을 겪는 과정과 슬픔을 다루는 단계들을 다음과 같이 보여 준다. 다음을 칠판에 적어보자. 1) 충격 2) 우울증 3) 죄책감 4) 분노 5) 현실. 누군가에게 로마서 9:1-3절을 읽게 할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어떠한 슬픔의 단계들이 나타나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들도록 하자. 의견을 들어보자. (알아들 것은 모든 사람이 반응할 수도, 모두가 반응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정확한” 답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바울의 깊은 슬픔을 느껴 보는데 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각자의 슬픔의 회복했던 개인적 경험들을 나누도록 해 보자.

이렇게 묻자. 이 과의 처음에 나타난 바울의 슬픔이 당신에게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의 부족성은 바울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는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했다.)

학습 인도

2. 우리가 이 과를 다룸에 따라 우리가 다뤘던 다음에 나오는 4가지 주요 이슈를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칠판에 다음과 같이 적어 보자. 1)바울의 고통과 번민 2)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3)유대인과 그리스도 4)축복된 남은 자들. 이 주제들을 가지고 다음의 형식을 따라 발표를 준비 해 보자. a) 이슈 직면하기. b)질문 c)핵심 성경 구절 찾기 d)학생용 공과에 나오는 설명 참조하기.

3. 이슈 1)바울의 고통과 번민.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의 고통과 번민을 나타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누군가에게 로마서 9:1-3절을 읽게 하자. 학생용 공과에 이미 언급된 이스라엘을 향한 슬픔과 실망들의 관하여 비슷하게 나와있는 다음의 구약성경을 읽어 보자. 예레미야 4:19-22절, 출애굽기 32:32.로마서 9:1-3절을 설명하기 위해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에 나타난 구절들을 참고 해 보자.

4. 이슈 2)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자. 학생들이 질문에 대해 생각 해 보도록 누군가에게 로마서 9:4-5절을 읽게 하자. 학생용 공과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9:1-7)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장점을 가르쳐주었다.” 로 시작하는 6번째 단락을 참고해도 좋다.

5. 이슈 3) 유대인과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라고 묻자. 누군가에게 로마서 10:1-13절을 읽게 하자. 학생용 공과의 “길을 잃은 자들과 구원으로 향하는 길(10:1-13)” 부분과, 인도자 지침서에 나타난 “성경 주해”를 참고해도 좋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자.

6. 이슈 4) 축복된 남은 자들. 바울은 다가 올 하나님의 시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라고 묻자. 누군가에게 로마서 11:1-2 상반절, 25-32절을 읽자. 강조할 점은 바울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거부하지 않으셨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다. (11:1-2 상반절.) 또한 11:25-26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구원을 얻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용 공과의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 (11:1-2, 25-32)” 부분과 “정리” 부분을 참고해도 좋다.

적용 격려

7. 학생용 공과의 질문들을 사용하여 오늘날 유대인들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요약해 보도록 하자. 탐구 질문을 묻고 대답해 봄으로써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p>[제 11 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반응하는 삶</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12:1-8</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12:1-8</p>	<p>학습주제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은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불러 주셨으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셨다.</p> <p>탐구질문 은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데에 당신 자신을 어느 선까지 하나님께 내어 드렸나?</p> <p>학습목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자비하심에 반응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결심하자.</p> <p>실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확증한다 * 성장하고, 활력있는 믿음을 개발한다 * 일을 결정하고 봉사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포함한다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 섬기는 지도자로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그리스도인 윤리를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선생님이셨던 Bill Pinson 박사님은 그가 말했던 것을 정확하게 암기 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확인했던 한 가지 예로 그 사람의 입술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실현화 하냐는 것이었다. 내가 전에 일한 적인 있는 故 Foy Valentine 박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그리스도인 윤리의 결과를 위해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표현 속에는 또한 매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정의가 숨어있는 것이다.

로마서 12:1-8절에서, 바울은 말과 삶이 일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같은 특징을 나타내야 한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무엇이 그리고 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중요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그는 삶을 살고 판단하는 특별한 기준을 두었다. 그는 완전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릴 때 진정하게 이 개념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본문 해석

그러므로 (12:1-2)

12:1. “그러므로”의 시작과 함께 바울은 그의 신학의 본질적인 통합과, 특히 그의 기독교 론에 대하여 증명했다. 그리스도 안에 둔 믿음은 믿을 수 있는 입증이 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냐는 것이다.

바울은 호소했다 - 그는 귀 담아주기를 요청했으며, 애원했으며, 간절히 바랬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라고 쉽게 말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12:2 이 구절은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고 불렀던 특별한 주의를 주었던 구절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그들의 마음을 함께하지 않거나, 그들의 마음을 잃으면서 단순히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은 그 자신을 둘러싼 문화에 따라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바울은 마음이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목적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자신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 이해력, 판단력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 “선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며 완벽한 것이다.” 아 마도 “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 이 말은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정도보다 더욱 낮은 수준일 것이다. 물론,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연속체가 된다. 별로 좋지 않은 경험으로부터가 아니라 바울의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 (12:3)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왜 되지 않는지 알기 원하며, 그들의 삶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절하며 더 잘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너무나 많은 돈들이 자기관리를 돕는 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사는데 들어간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으로 그들의 행동이 크게 좌우됨을 알고 있었다. 로마의 회중들 사이에서 교만은 명백한 문제였다. 교회에서는 자만심과 오만심의 문제를 둔 충돌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

바울은 재빨리 사고에 관한 과제를 내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 것.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우리는 성령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을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 졌으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어주신 소중한 한 사람 한사람들이나 다름없다.

한 몸 (12:4-5)

12:4. 당신의 몸에 어느 한 부분이 감염이 되었다면 몸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러진 발목은 회복이 된 후에도 부러지지 않은 다른 발목을 의지하여 걸는데 이것은 아픔을 적게 하기 위해서다. 치료는 환자를 돌 볼 수 있는 의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바울은 교회의 지체들을 “한 몸”이라고 칭했다. 한 몸 가운데 한 부분이 -인간의 몸이든지 교회가든지- 감염이 되었다면, 모든 다른 부분들도 감염이 된 것이다.

12:5. 회중의 한 사람만으로는 회중의 목적과 역할을 감당 할 수 없다. 교회의 회중은 목사님 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회중이 함께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해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회중의 삶이 무엇, 누구, 그리고 어떻게 행해질지는 바울이 설명한 원칙과 정밀한 조사아래서 온다.

4절의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지체들은 “서로 간의 지체들”인 것이다. 이 가르침이 3절의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려해보자.

다른 은사들 (12:6-8)

바울이 열거한 교회를 향한 은사들을 비교해보자. 그는 고린도의 있는 교회와 연관되어 말했다. (고린도 전서 12:4-31)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서 4:11-12)에도 하나가 되는 것과 몸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에 대한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은사들은 또한 베드로전서 4:10-11절에도 나와 있다.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한 바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들을 교회를 향하여 남기려 함이 아니었다. 특정한 시대의 교회에서 다른 종류의 은사들이나 혹은 적어도 다른 은사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은사들에 대해 감사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12:6. 바울은 이 은사들과 그들이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은사들은 다르게 계획됐으며 그것들은 다르지만 조화를 이룬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은사들을 매우

주의 깊게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특정 몇 가지의 은사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더욱 신성하고, 더욱 귀중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들은 결국은 조화를 깰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안정되게 추진 할 수 없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1:14-26절을 보라).

12:7-8. 바울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권면하는 자”, “나누어 주는 자”, “지도하는 자”, “자선을 베푸는 자”와 같은 다른 은사들도 얘기하였다. 이 구절에 관하여 다르게 번역된 성경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섬기는 일”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아 돕는 행위를 동반한다.

바울은 가르침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바울은 이 은사에 관하여 다른 곳에서도 종종 언급한 바가 있다. (고린도전서 11:28; 에베소서 4:11; 디도서 2:1절을 보라.) 가르침의 개념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또한 구체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면하는 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적용하는 용기를 돋우는 것은 권면의 한 부분과 같은 것이었다.

“관대함”은 물질적인 것에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관대하다는 것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지도하는 자”를 언급했다. 주제 강의 세미나나 수많은 책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리더십이란 마술처럼 한 번에 나타나는 빛과 같이 생각하기 쉽다. 바울의 간단한 리더의 자격으로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바로 “성실함”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선을 베푸는 자”에 대하여 얘기하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비"라고 나타나기도 한다. (NIV, NASB 버전) 이 세상에서 법이나 료를 어기면 응징과 형벌로 어김없이 우리를 판단할 사람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 친절함을 표현할 수 있으며, 용서함, 그리고 자비와 자선을 베풀 줄 아는 자가 필요하다.

의미파악

이 과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나타난 바울의 훈계는 약속과 행함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반응하여 우리 자신을 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성실히 예배하는 것이다.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해결책의 한 부분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우리자신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어드리는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대학(Hardin-Simmons University)의 학부 과정의 한 부분은 물리치료법이다. 중요히 관심을

두며 훈련하는 것은 바로 육체이다. 학생들은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정말로 관심을 가지며 사람들과 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몸과 기능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태도들에 관심을 가져가며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건강한 정신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육체적 치료도 급속히 온다. 이것은 몸 안에 안정성을 세우도록 돕는다. 에너지는 치료가 필요한 곳과 강화가 필요한 곳에 전달되게 된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바뀔 수 있다. 하물며 사람이나 교회의 회중들이 얼마나 바뀔 수 있겠는가?

교시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로마서 11장 끝나는 부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있다. 그 후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로마서 12장과 연결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이끄셔야 함을 강조하자.

학습 인도

2. 로마서 11:33-36절을 교독하여 읽자.(인도자가 33절을 먼저 읽은 후에 학생들이 읽도록 하자.)

3. 이 구절에 따르면 왜 하나님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지 학생들에게 물어보자.

4. 학생들에게 로마서 12:1절을 조용하게 읽게 한 다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산 제물”의 삶을 드러야 한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제안했는지 살펴보자. (“수업계획 - 다양한 학습활동”의 3번을 참고해도 좋다.)

5. 2절을 읽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지 그 예들을 살펴보자.

6. “하나님의 뜻”이 2절의 중심인 것을 강조하자. 한 친구가 당신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

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을 칠판에 적어보고 함께 얘기해 보자.)

- 희생
- 섬김
-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음
- 마음을 새롭게 함
-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7. 3절을 읽자. 바울이 정의한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은)

8. 교회의 전형적인 한 주간 동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칠판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자. 이제는 4-5절을 읽도록 하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다양한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다양한 것이지만 예수님께 중점을 둔 것인가?

9. 로마서 12:4절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질문을 답해 보자. 모든 사람이 성가대에 들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유치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단기선교를 가야 하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책임과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4-5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10. 6-8절을 읽자. 학생용 공과에 있는 “성경에 나타난 영적 은사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 은사는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되었다. 다만 그것들은 다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자.

적용 격려

11. 다음 설명의 합당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 보자.

- 필요한 때에 식사를 대접하는 자
- 권면하는 말을 은사로 가진 자
- 개인의 시간을 쓰는데 관대한 자
-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다양하게 나타나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도 언급해 보자.

12.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인 다음을 함께 토의 해 보자.

- 우리의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때 어떤 종류의 희생이 필요한가? (12:1)
-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은사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 우리는 왜 섬겨야만 하는가?

13. 학생용 공과의 탐구 질문을 인용하자. 다음의 마지막 질문을 해 보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에 반응하여 당신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p>[제 12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이렇게 살라</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로마서 12:9-18; 13:1-14</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로마서 12:9 --13:14</p>	<p>학습 주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p> <p>탐구 질문 어떤 것이 당신이 살아가는 방법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가? -- 세상 풍속인가? 아니면 성경적 교훈인가?</p> <p>학습 목표 내가 실천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 중 최소한 한 가지 명령을 실천할 것을 결심한다.</p> <p>실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확증한다 * 성장하고, 활력있는 믿음을 개발한다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도록 도운다 * 몸과 영혼의 필요들을 채워줌으로써 예수님께 순종하고 봉사한다 * 섬기는 지도자로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여야 할까? 이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한 이후 계속해서 일어난 질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이 규정된 틀이나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으로 선언하거나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틀이나 프로그램은 또 하나의 틀과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세월이 얼마 지나기도 전에 또 다른 메카니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생겨나는 것이다.

점차 그 대답은 본래의 질문과 너무나 동떨어진 대답이 되어서 이단과 다름없는 대답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들 중의 하나가 복음과 사회적 책임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경우이다. 또 하나의 이단은 이것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한 이단은 복음이 윤리적인 적용들이 되어버린 경우이다. 적용이라는 용어는 복음이 단지 생활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매일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라는 사상을 전달해준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더욱 발전된 이단적 사상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올바른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밀러는 (A.C. Miller) BGCT (텍사스주총회)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사명 부서의 최초 부장이었다. 그 부서는 도덕적 윤리적 이슈들을 책임지고 있었다. 밀러 박사는 종종 윤리적 적용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코멘트를 했었다. 그는 이렇게 올바르게 지적했는데 ‘복음은 윤리적 적용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윤리적 사명들로 주어진 것이다.’

이번 과에서 고려해야할 구절은 윤리적 사명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 중의 하나이다. 이번 과에서 공부할 구절은 이러한 많은 사명들을 싣고 있다. 이러한 사명들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팎에서 살아가는 지침들이다.

본문 해석

그리스도인의 사명들(12:9-18)

12:9-10. 당신은 당신의 이메일로 모조 시계 광고들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모조품은 결코 진품처럼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더욱 깊은 비극은 삶을 속임, 위선, 그리고 조장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모조로 살아가는 것이다. 진실함, 진정성, 그리고 투명성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위선적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가르쳤던 삶의 질적 수준이다.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바울은 악한 것을 “미워” 하고 벗어나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무엇을 가깝게 간직해야 되는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일종의 가족 같은 진실한 “상호적 사랑”이다. 가족의 일부인 그리스도인들은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서로 돌보아야 한다.

바울은 또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서로 먼저 하기 위해서 경쟁하라고 했다.

2:11.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일을 벌이며, 모든 일들을 열정적으로 해서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다! 9절에서 “진실”해야 된다고 명령한 것을 잊지 말라. 바울은 우리가 목적과 초점,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삶에 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12:12.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계속해서 붙잡으라고 가르쳤다. 소망과 함께 즐거워하며, 고난과 함께 참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계속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다. 이는 매일,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실재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복음화된 삶과 마음은 그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방법들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할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 (살전 5:17) 하라고 가르쳤다. 바울은 그와 비슷한 교훈을 로마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12:13.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돌보라. 이러한 사명은 본래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당신과 함께 사는 이웃을 사랑하라; 손님을 잘 대접하라. 그러한 행동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리켜 주는 것이다.

12:14. 바울은 이 구절에서 두드러진 반어법을 사용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 하되 특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 하라는 것이다. 소극적 명령 “저주 하지 마십시오” 는 적극적 명령을 더욱 강조 해준다.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12:15.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라. 바울은 다른 사람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관계를 깊게 해준다는 것을 이해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말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올바른 감정 표현은 복음이 실어지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12:16.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한 마음이 되라(Live in harmony)”는 음악 연주에서 여러 악기가 각각 하나로 조화롭게 소리 내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롬 12:3절에서 바울은 교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그는 다시 그 말씀을 언급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천한 사람들,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 구절은 9절의 대칭적 이미지다.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높고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12:18.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 갈등들이 로마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분명히 오늘날도 실재한다. 오늘날 침례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갈등들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정말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갈등들은 심할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리하여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와 세상(13:1-14)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규범들을 가르쳤다. 이러한 규범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기능적 지침들, 전략들, 방법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은 만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명령들을 진실함으로 실천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긍정적인 관계들은 결국 교회 밖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1-2.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한다.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자명한 원리이다. 그러나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편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시키려고 하거나, 신앙인과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규정(規定)짓는 말로 확립하고자 할 때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본 구절에서 바울은 이상적인 국가 권력과 그것의 집행에 대해서만 원칙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다.

13:3-5. 네로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황제의 자리에 있었다. 바울은 네로의 지도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복종의 원리는 여전히 사회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국가의 통치자는 그 통치권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범위 내에 있을 때 그 권세의 신적인 기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법을 월권할 때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며 단지 성도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악한 도구로 전락될 뿐이다. 따라서 성도는 원(源) 권력이자 모법(母法)인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라 마음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선지자적 경고를 부단히 해야 한다. 이러한 통치자와 성도간의 관계성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엡 6:1)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메시지와 일맥 상통한다.

본문에서 '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인 권세이며, 목적 없이 임의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3:6-7.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내야한다고 간단하게 강조한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22:22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황제에게 속한 것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메아리처럼 들린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 하십시오”(롬 13:7). 이 구절의 말씀은 정부 관료가 존경받을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존경해야 될 의무도 그만큼 없다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시민의 불복종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정부를 존경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어떤 정부에 대해서도 봉사처럼 따라갈 필요는 없다. 정의의 원리가 약화된 곳에서는 저항이 적합할 때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3:8-10.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접착제요, 동기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13:11-14. 12-14절에 나오는 세 개의 명령어를 주목하라; (1) “... 벗어 버립시다...” (2) “... 단정하게 행합시다...”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 명령어들은 바울이 “벗어 버리자,” “입자” 라는 패턴을 사용한 곳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다.

교시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각 반원들에게 다음 자가 진단서와 함께 펜과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주도록 하라. 질문에 대한 답을 소리 내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도록 하라.

자가진단 질문

1 = 아니오 2 = 때때로 3 = 항상.

(1)-(6)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

- (1) 나는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
- (2) 다른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
- (3) 힘들면 쉽게 포기한다.
- (4)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 (5) 나는 정말 행복하거나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만큼 대한다.

(7)-(11) 질문은 정부에 대한 나의 태도, 혹은 관계에 대한 질문

- (7) 나는 통치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존중한다.
- (8) 우리 정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
- (9) 나는 정부 관료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일에 협조한다.
- (10) 세금을 내는 일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 (11)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명령에 순복할 의무가 있다.

(12)-(14)는 이웃과의 관계, 특히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 (12) 나는 진실로 이웃을 사랑한다.
-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대로 한다. 십계명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4)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학습인도

2. 칠판에 “진실하게 살라” 라고 써라. 한 사람이 롬 12:9-18절을 소리내서 읽게 하고 다른 반원들은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듣도록 하라. 반원들의 의견을 칠판에 적어라. 학습공과에 있는 내용과 지금 읽고 있는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라.
3. 자가진단서의 1-6번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원들이 이번 주에 노력할 영역에 동그라미 치도록 하라.
4. 칠판에 “순종하며 살라” 라고 적어라. 한 사람이 롬 13:1-7절을 소리 내서 읽게 하라. 질문, 우리는 _____ 할 때 어떻게 이 가르침들을 따를 수 있을까? (밑줄 친 부분을 각각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넣어서 질문하라)
 - 정부 지도자들이 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일 때
 - 제한속도법, 배심원 봉사, 혹은 환경오염법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았을 때
 - 어떤 사람들이 탈세하는 것을 보았을 때
 - 정부가 심각하게 악하고,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인간의 권리를 무시할 때
5. 자가진단 질문 7-11번을 반원들이 보게 하고 이번 주에 각자 기도할 영역에 동그라미 치도록 하라. 로마서 13:1-7절에 대한 학습공과의 내용과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라.
6. 칠판에 “빛 가운데 살라” 라고 적어라. 한 사람이 13:8-14절을 소리 내서 읽게 하라. 11절에서 바울이 잠에서 깨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지적하라. 질문, 왜 우리는 깰 필요가 있는가?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7. 반원들이 자가진단 질문 12-14번을 주목하도록 하라. 바울이 “빛”을 언급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롬 11:12). 반원들이 이번 주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빛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자가진단 질문서 아래에 쓰게 하라.

적용격려

8. 반원들이 자가진단 질문서에 동그라미 친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보도록 하라. 동그라미 친 것들에 대해서 나눌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도록 하라.
9. 롬 12:10-11절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반원들에게 읽어주도록 하라.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p>[제 13 과]</p>	<p style="text-align: center;">당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그리스도인을 환영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롬 14:1-2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롬 14:1-15:13</p>	<p>학습 주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격려해야 한다.</p> <p>탐구 질문 그리스도인들을 갈라서게 만드는 비난과 판단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p> <p>학습 목표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갈라서게 만드는 저주와 판단을 멈추게 하는 길을 생각해본다.</p> <p>실천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최종적 권위라는 것을 확증한다 * 성장하고, 활력있는 믿음을 개발한다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 성기는 지도자로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최근의 한 연구결과가 나의 눈길을 끌었다. 그 연구에서 밝혀진 것들은 현재 대학생 세대들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그들의 결정과 그것에 관련된 패턴들은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대학생들에게만 제한되는 모습도 아니다. 그러한 패턴이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뒤에 놓여 있다. 결국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실재로 인해 우리는 사람들을 존귀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기분과 몸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실천해나가는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본문 해석

비평과 편견 (14:1-12)

나를 판단하지 마! 는 공통적인 주장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취소할지도 모른다.

이 구절에서 비판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14:1-4. 바울은 일반적인 매일의 상호 변화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들을 적용했다. 바울의 구체적인 명령은 일반적으로 가치 없는 것 속에 포함되었던 것이었다.

어떤 로마 교인들은 식물만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드러진 후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을 먹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지 않은 고기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바울은 각 그룹이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크게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위험에 달려 있었다.

바울은 서로에 대한 쌍방의 비판을 거부하는 기본적인 뼈대 속에서 “하나님께서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롬 14:3)라고 주장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든, 식물만을 먹는 사람들이든 간에 모든 개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의 주로 고백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가치는 그들이 먹고 먹지 않는 것에 관련된 어떤 비평보다도 위대한 것이었다.

14:5-6. 날을 지키는 문제로 그 분열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아마도 로마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전에 지키던 종교적인 날짜들을 예배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다. 이들은 아마도 유대인의 절기들이나 혹은 로마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특별한 날들일 수 있다. 구약에서처럼 아마도 이러한 날들과 절기들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다.

오히려 어떤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혹은 모든 날들이 똑같다고 선언하는 것을 강조하지 말라고 했다. 다시한번 바울은 그 갈등이 문제를 일으킬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바울의 견해를 이해하는 열쇠는 각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로 먹거나 혹은 먹지 않는 점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강조해야 할 중요한 점이었다.

바울의 가르침은 상대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이생을 살아가면서 진리에 대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원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의 일부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내를 키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으로 서로를 보는 것이다. 그 시각을 이해하는 열쇠의 한 부분은 각 사람과 각 그룹이 서로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그들은 서로가 필요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가? 그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한 지체이며 서로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14:7-9. 가르침 속에서 바울은 성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내려 주었다.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예수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놀라운 표현이다. 예수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의 통제 권한을 그분께 드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그분께 드린다. 많은 갈등과 충돌들이 커다란 그림 속에서 작아져야 되는 것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14:10-12. 바울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 즉 각 사람은 궁극적으로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계할 날이 온다는 것이다. 바울이 이러한 교훈을 할 당시에 그들 중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 혹은 자신의 인생을 판단했다. 사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신처럼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습관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고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의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가, 혹은 얼마나 큰가? 사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최후의 권한을 가진 자들처럼 행세를 부려오지 않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다.

어떤 로마 교인들은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과 배치되는 자리에 자신을 몰아넣은 꼴이 되었다.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예배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로마 교인들의 그러한 상황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명들과 이웃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에 삶의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응 (14:13-14)

바울의 이 교훈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강조점이 있다. 그 교훈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진정한 교제 속에서 지침들을 주고 있다. 그는 결코 그 단어를 여기에서 이용하지 않았고,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섬김을 말하는 것은 실재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종이 되는 것은 상당한 훈련과 인격 연마가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 깊은 생각들 (14:15-21)

다른 두 구절이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고린도전서 8:1-13절과 9:19-23절이다. 이 구절들은 1세기 교회들, 특히 로마와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교제 가운데서 부딪혔었던 문제들을 보여준다. 그들의 교제 가운데는 비판과 사람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견해와 행습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분명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의 시대에서도 풀리지 않은 상태다.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기 시작했다면 21세기 교회들 안에 있는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었을 것이다. 복음에 대한 너무나 많은 걸림돌은 실재로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사랑” 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으로 귀추 될 수 있다.

바울이 21절에서 영두에 둔 것은 약한 형제가 강한 형제의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강한 자들로부터 받는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행함으로써 실제로 결국 걸려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함을 말한 것이다. 즉 강한 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약한 자들을 마침내 정상적인 신앙 생활에서 이탈되게 하여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말한다. 이것은 13절과 15절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요컨대 바울은 본절에서 말하는 그러한 종류의 일이 있을 때 자기가 가진 신앙의 확신과 내적 자유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외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강요함으로써 동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방해나 또는 파멸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확고한 내적 확신과 자유를 가지지 못한 자가 강한 자의 행동을 본받음으로써 신앙 인격의 순수성 및 고결성이 상처를 받고 그 영혼의 상태가 상심케 되며 혼돈케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내적 확신과 내적 자유의 외적인 표현은 기꺼이 절제(節制)하고 단념해야 한다. 이러한 일이야말로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교훈이다.

그런데 위의 세 가지를 안 하는 것이 소극적인 자세라면 이에서 더 나아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17, 19절) 힘쓰는 것은 적극적 자세이다.

교시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다음 아이디어들을 칠판에 기록하라: 미국의 전쟁 참여; 할로윈; 공화당 혹은 민주당 투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

2. 다음 점검표를 나누어 주라. 반원들이 동의하는 모든 곳에 체크하도록 하라.

- ___ 칠판에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매우 불편하다. 오늘 아무런 논쟁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 ___ 성경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 ___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___ 때로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알잡아 본다.
- ___ 여기에 기록된 문제들에 대한 믿음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드러내 준다.

3.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실재들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반원들에게 말하라.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 우리와 직접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반대와 논쟁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라.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이와 같은 실재에 직면했었다는 것을 지적하라.

학습인도

4. 딜레마 중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어떻게 특정한 날들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을 주목하라. 로마서 14:1-6절을 읽어라. 필요하다면 학습공과 단원 4의 개요부분과 13과 내용을 참조해서 배경이 되는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라. 질문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5. 로마서 14:7-12절을 반원 중 한 사람이 읽게 하라. 다음 질문을 하라:

◆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되어야 하는가?

◆ 다른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6. 다음 독백을 읽도록 하라, 혹은 반원 중 한 사람이 읽게 하라.

학생 1 (거만한 태도로): 우리가 이 구절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었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을 비판한 적이 없다. 나는 이 구절을 읽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답하게 될 것이다!

학생 2 (진지한 자세로): 우리가 이 구절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 묻기로 결정했었다. 결국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행동하든, 나는 나 자신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 대답할 것이다.

독백에서 표현된 두 사람의 태도에 대해 반원들의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라.

7. 로마서 14:13-21절을 큰 소리로 읽어라. 다음 예화를 말하라: 하루 종일 케빈과 리사는 자녀들의 장난감들을 규칙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 이러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혼잡스럽게 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들을 방문했다. 비록 할머니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지만 할머니가 아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장난감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질문하라, 바울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적용격려

8.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는 비판을 종결시키는 방법들을 오늘 공부 한 것을 통해서 제안해보도록 하라. 반원들의 의견을 목록으로 만들어라.

9. 기도하기 전에 이전에 배웠던 한 구절을 복습하도록 하라,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